

길 위의 인문학은..

길 위의 인문학은 국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은평구립도서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탐방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인문학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문학, 역사, 예술을 조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애향심 고취는 물론 한국의 문학, 역사, 예술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 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난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은평구립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은평구에서 건립한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2001
년 10월 15일 많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개관을
하여,

친절·봉사·문화·정보·지식을 운영 지표로 삼고
있으며,

도서문화축제,

대학입시설명회,

독서교실,

꿈꾸는 사서의 움직임은 도서관,

주부독서클럽,

주말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화가들의

유쾌발랄 서양미술사

1차 탐방 일정

- 일시** 2014년 7월 26일(토)
10시 00분 ~ 18시 00분
- 장소**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
환기미술관
- 일정** 사전 모임(책 속의 이야기)
→ 점심식사 및 이동
→ 환기미술관 탐방
→ 작별인사

작가 박석근



1962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난 박석근은 호수처럼 잔잔한 마산만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연을 날리며 자랐다.

중학교 2학년 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고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그 뒤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에서
문학 작품과 예술 서적을 닦치는 대로 읽었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미학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삼십대 초반에 『문학사상』 신인상에
「전망 좋은 집」이 당선되어 작가 생활을 시작했고,
2010년 전국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표작 소개



글 박석근 / 그림 김미지

출판사 사계절

2012년 4월 27일

미술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 놀라움과 위로 같은 정서적 자극을 준다. 「밀로의 비너스」는 아름다움의 원형을 보여줘 경탄하게 하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지친 삶에 위로를 주며, 고희의 「열다섯 송이 해바라기」는 환한 기쁨을 준다. 여기에 미술에 대한 배경 지식까지 있다면 어떨까?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책을 찾는다. 그런데 기존의 미술책들은 딱딱해서 손이 잘 가지 않고, 집어 들어도 오래 안 가서 지루함에 덮고 만다. 감상의 깊이를 담고 있으면서도 쉬운 미술 입문 책은 없는 걸까?

『수상한 화가들』이라면 누구나 유쾌하게 미술을 즐기며 감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 책은 서양 미술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소설로 엮은 미술 지식소설이다. 문학적 재미와 미술사의 지식, 친절한 작품 해설, 이 세 요소를 고루 갖추었다.

우선 이 책은 친절하게 서양 미술사를 안내하기 위해 '수상한 화가들' 이라는 흥미로운 캐릭터를 만들



었다. 이들은 시공을 넘나드는 능력을 지니고 미술계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미술에 관심은 있지만 별다른 지식은 없는 청소년 철우를 선택해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돌하르방을 닮은 얼굴로 특하면 철우를 지팡이로 내리치는 아폴로니오스, 파이프를 입에 물고 틴만 나면 자기 자랑을 일삼는 안토니오, '놀 줄 아는 동네 형님'의 외모를 한 살라이, 그림 앞에서 예의를 갖춰 정중한 태도로 설명해 주는 연미복의 신사 쇠라, 정신없이 수다를 쏟아 내지만 명료하게 핵심을 짚어 주는 브라크. 하나하나 개성이 살아 있는 이들 수상한 화가는 고대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다채로운 작품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수상한 화가들과 시간 여행을 떠나는 판타지는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이는 그저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있는 미술을 접하게 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주인공 철우는 수상한 화가들의 안내로 고대 그리스에서 황금비의 창시자를 만나고, 중세 고딕 성당에서

'미소 짓는 천사'를 보며, 르네상스의 거장에게 직접 미술 기법을 배운다. 또 예술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라오콘 군상」의 발굴 현장에 함께하고, 인상파 화가 모네와 함께 센 강가를 내려다보며 색채의 변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잭슨 폴록과 앤디 워홀의 작품 제작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독자는 이 책을 읽는 동안 한 사람의 여행객으로 초대돼 현장의 호흡으로 작품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이 책은 미술 지식을 전하기 위해 예술사의 검증된 사실로 이야기를 꾸몄다. 문화재 발굴단장으로 「라오콘 군상」의 발굴을 지휘하는 미켈란젤로의 모습, 자신의 신념을 펼치다가 정부의 미움을 사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의 상황, 파격적인 작품으로 관객을 당혹케 해 급기야 작품이 관객에 의해 파괴당하는 일을 겪는 뒤샹의 모습 등 실제 역사의 장면을 선택해 구성했다. 그리고 화가들의 말과 행동도 문헌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다. 고흐가 자신의 미술 기법에 대해 쇠라에게 하는 고백, 브라크가 피카

소의 「아비뇰의 여인들」을 보고 내뱉은 감탄의 말, 몬드리안과 칸딘스키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말 등은 모두 실제 발언이다.

이렇게 이 책은 화가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역사의 장면을 선택해 구성함으로써 작품 해설의 열쇠로 삼았고, 화가들의 실제 발언을 적절하게 사용해 화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재미와 함께 깊이도 놓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여러 미술 기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이 책은 콘트라포스토, 스푸마토, 점묘법, 자동기술법 등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법이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임을 인상적으로 보여 준다.

나아가 최근 미학의 성과까지 담았다. 한 예로, 이 책은 밀레의 「만종」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보여 준다. 「밀레」의 감자 바구니에 죽은 갓난아기가 있었다는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주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고리타분한 해석에 일침을 놓고 작품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 준다. 보통 미술 책에서는 중세 예술을 그저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이 책은 중세 예술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설을 제시한다. 이는 이 책만의 장점이다. 이 책은 중세 예술이 종교에 예속된 차원 낮은 미술이 아니라 '아방가르드의 원형'이라는 신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가 '중세 미술이 이룬 색채의 해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런 참신한 설명은 최근 미학의 성과까지 담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작품 감상을 위한 미술 교양 책은 깨끗한 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흐릿하거나 원작과 색상이 다른 도판을 실는 경우가 흔했다. 이런 도판은 걸작의 감동을 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독자를 헛갈리게 만든다. 본문에서는 색채 대비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실려 있는 도판은 원작과 색상이 달라 색채 대비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 책은 70여 개의 선명한 도판이 시원시원하게 실려 있어, 작품 감상을 위한 기본을 갖추었다. 이들은 보는 것

만으로도 눈이 즐거워질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을 비롯해 미술에 문외한인 이들 누구
나 부담 없이 미술에 다가갈 수 있는 안내서다. 지식
소설의 장점을 활용해 그 어떤 미술 해설서도 보여
줄 수 없던 흥미진진한 세계를 펼쳐 놓았다. 황금비
의 모범으로 알려진 폴리클레이토스의 「창을 든 남자」
가 고대의 먼지를 툭툭 털고 독자 앞으로 걸어 나오
며, 고대의 미학으로 불리는 「라오콘 군상」에서는 뱀
과 사투를 벌이는 라오콘의 죽음의 냄새가 비릿하게
전달된다.

읽고 느끼고 즐거움에 푹 빠질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심장을 뛰게 하는 살아 있는 미술을 만날 수 있을 것
이다. 예술계의 거장들을 만나
대화하며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품 감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중>

고대 그리스의 미술

- 조화와 균형의 추구 -

고대 그리스인들은 조각뿐만 아니라 회화의 표현까지도 이집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지의 자연스러움과 품위를 획득했다. 화가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인체를 묘사하는 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인물의 자세도 능숙한 시각에 의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무릎의 형태를 보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실제 인체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청년들의 모습을 청동조각상으로 만들어 신전에 영구보존하곤 했다. 그 당시의 운동경기는 단순히 육체적 기량을 겨루기 위한 시합이 아니라 운동경기 자체가 종교적 행사였다. 따라서 그런 청년 조각상이 많았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조각상은 매우 드물다.



원반던지는 사람.
기원전 430년경
대리석.
로마 국립미술관

그리스 조각가 미론(Myron)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원반던지는 사람>은 진품이 아니라 로마시대에 복제된 모조품이다. 원작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이라고 추정되는데 그 탁월한 조형성으로 인해 다수의 모조품이 로마시대에 만들어졌다. 이상의 특징은 원반을 잡고 있는 인물의 움직임이 활력 넘치면서도 자연스럽다. 또 원반을 날리는 순간의 긴장된 순간의 움직임을 격조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의 미술품을 보면 실제 대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것들은 사람들처럼 우리들 앞에서 서 있으나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보다 나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 같이 보인다. 그리스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의 미술이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폴리클레이토스의 <창을 든 청년>은 당시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였던 그리스 청년이었다. 폴리클레이토스는 이 청년을 그리스 남성의 이상적인 모델로 정하고 미의 법칙을 연구했다. 그리하여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폴리클레이토스는 머리가 신체의 7분의 1이 되었을 때 인간의 신체가 가장 아름답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이 바로 7등신의 법칙이다.

그로부터 100년 쯤 뒤 리시포스라는 조각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미의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그는 머리가 신체의 8분의 1이 될 때 인간의 육체가 가장 아름답다는 법칙을 새로 만들었다. 이른바 8등신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오늘날까지 미인의 선발에 기준이 되고 있다. 8등신의 법칙은 단순히 미의 취향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황금분할*이라는 비례의 법칙이다. 이후 그리스의 조각, 공예, 신전건축 등 모든 예술은 이 황금분할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창을 든 청년
기원전 450년경

고전 시대의 비너스 상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밀로(Milo)의 비너스다.



밀로의 비너스
기원전 200년경
파리 루브르 박물관

멜로스(Melos)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
운다. 이 작품은 옆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여기서 이 조각의 명료성과 단순성, 그리고
거칠거나 모호한 점이 하나도 없이 신체의 주요 부분
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기법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대 그리스 건축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웅장하
게 세워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파르테논 신전 건축은 당시에 온 국민이 하나
가 된 국가적 사업이었다. 세계의 맹주가 된 페르시
아 다리우스왕은 그리스를 정복할 야욕으로 아테네
동북쪽 마라톤 해안에 군대를 상륙시켰으나 아테네
용사들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기원전 490년에 일어
난 이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한 병사가
마라톤 해안에서 42.195km 떨어진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 승리를 알리고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마라톤 전투에서 페리클레스 군에 대패배한 페르시아는 호시탐탐 재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다시 그리스를 침공했다.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지 10년만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황제 크세르크세스의 지휘하에 전보다 훨씬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 북쪽으로 침입했다.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를 비롯한 많은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와 동맹을 맺고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싸웠다. 그리스 함선 몇 척이 페르시아 함대 정면에 유인작전을 펼쳤고, 페르시아 함대가 그리스 함선을 추격하다가 너무 깊숙이 추격하는 바람에 길이 너비가 2km 밖에 안 되는 살라미스 해협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 함대의 협공을 받아 페르시아 군선 200척이 침몰되고, 4만 명이 죽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고, 세계해전사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4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기원전 432년에 완공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아테나를 모시는 신전들이 파괴된 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스의 페리클레스에 의해 추진되었다.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해 새롭게 세워진 신전으로 페르

시아 군대에 의해 파괴된 신전들을 대신하는 신전이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그리스 건축의 최대 업적으로 평
가받는 건축물이다. 또한 신전에 장식된 조각품들은
그리스 예술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파르테
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상징이다. 원래 모습은 화
려한 색채와 무늬로 장식되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파
괴되고 약탈당하고 비바람에 시달린 나머지 처음 세
워졌을 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비례감각
은 그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헬레니즘

-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섞여 태어난 새로운 예술양식 -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이 힘을 길러 그리스 전체를 점령했다. 뒤이어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권좌를 이어받아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으로 군대를 이끌고 정복의 길에 올랐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방과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한 후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이집트에 세웠다. 알렉산드리아는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가 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어서 바빌론과 페르시아 중심부를 점령한 후에도 진격을 멈추지 않고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의 북서부 지역을 점령하고,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의 빛나는 문화를 제국의 각지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지에 퍼진 그리스 문화는 그 지역 토착 문화와 뒤섞여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었다.

헬레니즘이란 헬라스에서 나온 말로 그리스적이라는 의미를 띤다. 헬레니즘 문화의 원천은 그리스였으나, 헬레니즘 문화에는 그리스 문화와 같은 명량함과 건강한 기운을 찾기 힘들다.

이 시대 예술가들은 인간의 평온하고 건강한 모습보

다는 격동하는 감정의 움직임에 포착하여 표현했다. 죽어가는 갈리아인, 신과 거인족이 싸우는 모습 등이 그러하다. 이 시대의 최고 걸작은 <라오콘 군상>이다.



라오콘 군상
기원전 2세기경

이 작품은 큰 뱀에게 졸려 막 질식사하려고 하는 라오콘과 두 아들의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라오콘은 원래 아폴로 신을 섬기는 트로이의 제사장이었다. 라오콘은 트로이전쟁 때 그리스 군의 목마를 트로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했다. 그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사 포세이돈이 보낸 두 마리 큰 뱀에게 두 아들과 함께 졸려 죽게 되는 비극적 인물이다. 이 작품은 앞에서 본 그리스의 예술과 사뭇 다르다. 차분한 그리스 조각과 달리 뱀에게 죽임을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마디로 그리스 미술의 조화와 품위는 사라지고 그 대신 격렬한 감정의 울림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 예

술에서와 달리 꾸밈없는 인간의 감정을 작품에 충실히 담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간의 겉모습보다 내면세계를 중시하는 현대 예술론에 비춰볼 때 헬레니즘 예술가들은 선구자적인 데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리스 예술가들이 균형적이고 이상적인 미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헬레니즘 예술가들은 고통, 절망, 허무, 고독 등의 감정을 치열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방켈만*은 <라오콘 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라오콘은 격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근육은 팽창되었고 신경은 끊어질 듯 위험한 상태에 있으나 이마에는 강한 정신력이 나타나 있다. 그의 얼굴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절규하지는 않는다. 그의 눈은 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입가에는 비애가 가득 차 있다. 아랫입술은 고통으로 무겁게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불룩한 코 주변에는 부당한 수난에 저항하는 듯한 분노가 엿보인다. 예리하게 표현된 눈에 고통이 엿보인다. 그러나 눈썹은 치켜세워져 강하게 눈언저리를 누르며 고통에 저항하고 있다.

이 예술가는 자연을 미화시켜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고 긴박한 자연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최대의 고통이 존재하는 곳에 최고

의 미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라오콘 군상>에 대해 이와 같은 찬사가 있는 반면에 현대의 미술사학자 고프리치*는 “이 작품은 검투사의 싸움 같은 끔찍한 광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끌기 위한 미술일지도 모른다.” 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헬레니즘 시기에는 오늘날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유명한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로 여겼던 시대였다. 이 시대에 안목 있는 재산가들은 그리스 원작품을 비싼 값에 사서 소장하기도 했으며, 원작이 없을 경우에는 모작을 사서 집안을 장식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많은 작품들은 헬레니즘 시대에 제작된 모작이다.

헬레니즘 문화를 그리스 문화의 확대·발전으로 보는 견해와, 반대로 오리엔트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그리스 문화의 퇴보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그리스 문화도 오리엔트 문화도 아닌 새롭게 태어난 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의 격동기에 헬레니즘 문화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외래문화는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시시때때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뉴욕과 파리에 유행하는 것은 세 시간 후에 서울에서 유행한다'는 말은 헛말이 아닌 것이다. 더 나아가 강대국의 문화가 약소국의 문화를 집어삼켜버리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섞여 헬레니즘 문화가 새로 태어났듯이 세계화의 물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문화의 잉태를 부채질 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주

1) 황금비율:

한 선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전체에 대한 큰 부분의 비와 큰 부분에 대한 작은 부분의 비가 같도록 나누는 것. 그 비는 약 1.618:1로서, 가로와 세로가 황금비인 직사각형은 고대 그리스 이래로 가장 아름답고 조화를 이룬 모양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책의 곡판이나 엽서의 크기가 대략 이 비율로 결정되었다.

2) 방켈만:

1717~1768. 독일의 고고학자·미술사가. 방켈만의 가장 중요한 두 저서는 <그리스의 회화와 조각에 대한 의견>·<고대 예술사>이다. <그리스의 회화와 조각에 대한 의견>은 본질적으로 그리스 미학에 대한 철학적 정의로서, 자주 인용되는 방켈만의 언명인 그리스 조각의 '고귀한 단순과 정숙한 장엄'에 대한 글이다. 이 저술에는 또 독일의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고틀트 에프라임 레싱과 예술·문학·감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후대의 논쟁에 깊은 영향을 끼친 그리스 라오콘의 조각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 <고대 예술사>는 이미 낡은 책이 된 지 오래지만 예술사 연구의

기초와 그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의 발견된 직후 이곳을 방문한 빙켈만은 '공개서한'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 아마추어 보물탐구자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이들이 제대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일과 고대 보석의 분류목록 작성으로 그는 '근대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려왔다.

3) 고프리치 :

에른스트 H. 고프리치. 고프리치는 19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1933년 미술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35년 나치가 장악하고 있던 빈을 떠나 런던에 정착하였다. 1936년 런던대학의 바르부르크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59년부터 1976년 퇴직하기까지 연구소장직을 역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런던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국내의 저명한 대학의 객원교수로도 활동하였다. 그의 베스트셀러 『서양미술사』는 현재까지 전 세계의 미술학도들에게 변함없이 지식과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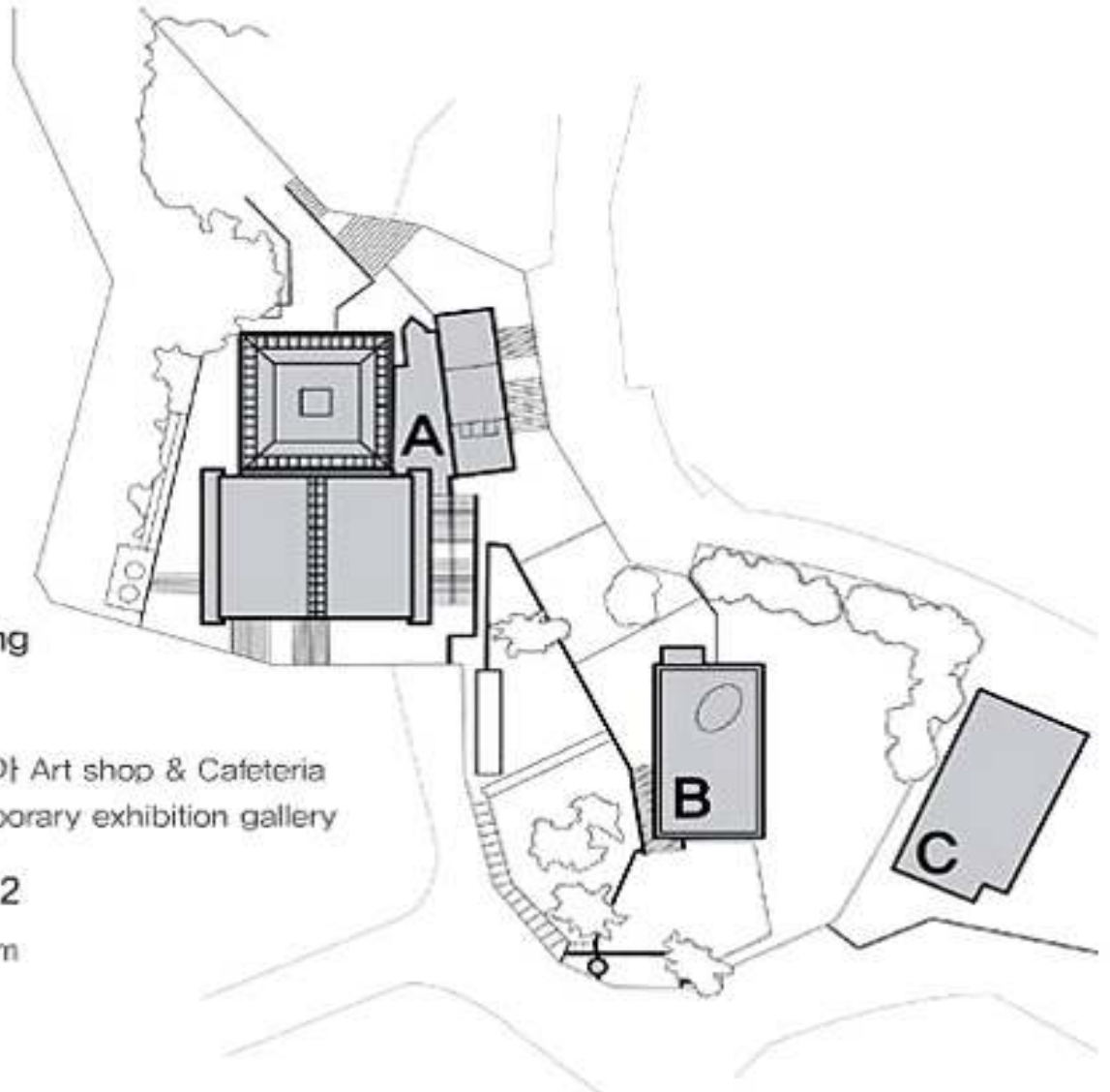
탐방지 소개



환기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탐방지 소개



A. **본관** Main Buiding

B. **별관** Annex 1

아트샵 및 카페테리아 Art shop & Cafeteria
기획전 전시실 Temporary exhibition gallery

C. **수향산방** Annex 2

강의실 Lecture room

환기미술관은 수화 김환기 선생 작고 이듬해 설립된 환기재단에 의해 1992년 세워졌으며 김환기 선생의 작품전시를 비롯한 다양하고 활발한 기획전시, 행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의 위치는 김환기, 김향안 선생 부부가 한동안 삶과 예술의 애정 담긴 흔적을 남기신 이웃동네, 성북동과 자연환경이 비슷한 이곳,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미술관의 건축 설계는 수화 선생과 친분이 깊었던 우규승 선생의 작품으로 외관상 민족정서를 일깨우는 한국적 재료, 즉 화강암 등을 이용하였으며 지붕의 돔과 색깔 있는 화강암의 벽면 구성 등은 김환기 선생의 작품세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내부의 전시공간은 자유스러우면서 독립적인 배치로 시대별 주제별로 작업을 나누어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환기미술관의 설립목적은 첫째, 수화 김환기 선생의 예술세계를 정리, 소개하여 작가의 빛나는 예술세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환기미술관은 김환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환기미술관에서는 이 같은 뜻을 살려 '환기 상' 제

도를 만들어 극적을 가리지 않고 장래성이 돋보이고 치열하게 작업하는 작가들을 뽑아서 격려하는 의미로 전시한다. 그 중에서 한사람을 발탁해서 상도 주고, 그 다음해에 개인전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매 회마다 그 방법론을 개선시켜가면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방법론을 바꾸어 미술관이 직접 주체가 되어 작가들을 눈여겨보고 찾고 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을 모아 그룹전을 열어주고 그 다음해엔 그 작가들 중에서 계속 다른 형식으로도 그룹전을 열어 몇 년마다 한 번씩 전시회를 해주면서, 그 중 독보적인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몇 년 후 개인전을 열어준다. 세 번째, 환기미술관에서는 김환기 선생의 작품세계를 연구하고 책으로 펴내기도 하고, 아트상품을 만들어 제공하고, 또 문화포럼을 7-8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좀 더 변별성 있는 강좌를 만들기 위해 고안한 것이 5~6년 전부터는 '북아트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환기미술관이 운영해오고 있는 이들 전시와 행사,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별히 유행이나 상업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단과 미술관의 설립자인 고 김향안 여사의 말처럼 미

미술관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그 곳에 담겨진 내용일 것이다. 저를 비롯한 환기미술관의 전 직원은 미술관의 생명이 순조롭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끊임없는 정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은평 역사문화 기행

2차 탐방 일정

일시 2014년 08월 24일(일)
 10시 00분 ~ 18시 00분

장소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

일정 답사를 위한 사전 강의

 자씨각

 청담사지(미륵원지)

 우봉 김씨 묘역

 진관동 생태계 보전지역

 삼천사

은평향토사학회장 박상진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은평향토사학회 회장(2013-현재)

진관동주민센터 “진관동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 담당 교수

은평문화원 “은평향토문화해설사”
양성교육 과정 담당 교수

기타 국립민속박물관 주관 전통문화지도사 양성과정,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과학관, 대전중앙과학관, 명지
대학교 사회교육원 등 향토사 강의

그 외 은평 밥보시할머니의노블리스 오브리주
국역 환구일기
은평구의 문화유산 등 저

1. 은평구의 위치와 발자취 알아보기

(1) 지리적 위치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은평구는 동경 126도와 북위 37도에 위치한 비교적 온후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형은 임야, 분지,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지맥이 한남정맥으로 이어져 서울의 진산이 되고, 다시 태백산 줄기의 광주산맥으로 이어지는 북한산을 동쪽 병풍으로 하고, 남쪽의 한강을 바라보며 서서히 지세가 약화되는 지역이다. 또 주위에는 북한산 지붕인 남장대(715m)를 비롯하여 비봉(510m), 백련산(215m) 봉산(209.6m) 앵봉산(237.5m) 등의 여러 봉우리들이 도심의 중심으로 둘러 있고, 계곡으로부터 발원된 깨끗한 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은평의 중심부인 불광천을 흘러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서울의 진산이라 불리는 북한산은 은평구, 도봉구, 성북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높이 836.5m의 산으로 서울 부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수도 서울의 진산이자 종산이다.

화강암으로 된 북한산은 일명 삼각산, 부아악, 화산, 화

악, 북정산, 북종산 등으로도 부르며, 최고봉인 백운대를 비롯하여 인수봉과 만경대(일명 국망봉)의 세 봉우리가 양주 땅에서 바라보면 마치 세 뿔처럼 솟아 있으므로 삼각산이라 하였다. 부아악이란 인수봉의 모습이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 은평구 행정구역 내의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북한산성의 정문인 대서문과 진관사, 삼천사, 용암사 등 전통사찰이 산재해 있어 주민들의 즐겨 찾는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북한산은 오래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서울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고, 산책로, 약수터, 암벽타기, 등반 등을 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인들은 이 산과 도봉산 등을 함께 일컬어 '서울의 촉복', '서울의 은총' 이라고 말한다.

또한 전체면적의 약 53.5%를 차지하는 녹지지역의 대부분은 북한산 국립공원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로 활용보다는 서울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허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 등 공해배출원이 없고, 녹지비율이 높은 은평구는 서울시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오염밀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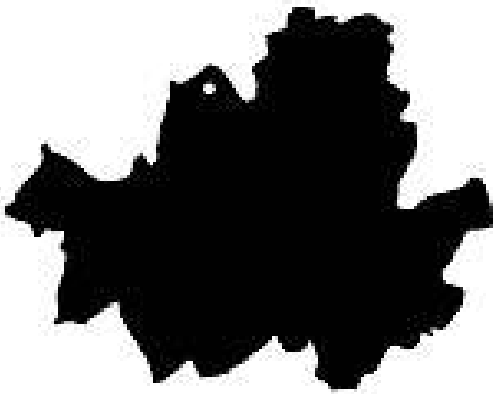
은평구는 백련산과 불광천이 서대문구와 경계를 이루며, 고양시 덕양구와는 창릉천이 또한 지형지물에 의해 북쪽의 경계를 이룬다. 은평구의 대표적인 하천인 불광천은 북한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비봉에서 발원하여 은평구 대조동을 끼면서 남류하다가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은평구 수색동의 경계를 이루게 된다. 구 동쪽경계의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내부의 낮은 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개활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광동, 대조동, 역촌동, 응암동, 신사동, 갈현동 등의 시가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표고 50m 내외 지역인 시가화지역은 5° 이하의 경사지를 가진 평탄지가 전체면적의 40.6%인 12.07k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은 25° 이상의 급경사지로 되어 있다.

은평구의 지질은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화강암은 우리나라 최대의 지각변동이라 할 수 있는 중생대 쥬라기의 대보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된 대보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화강편마암과 호상편암 등이 국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불광천 유역의 지질은 면적비로 볼 때 총적층이 14.7%이고 흑운모 화강암이 42.4%이며 선상 흑운모 편마암이 26.1%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앨범기존 분과학문인 역사학, 종교학, 천문학의 학제 간 경계를 넘어 역사천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낸 연구이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 연구는 과학사로 분류되는 천문사와 한국 고대사, 종교사상사 등으로 확장된다.

고분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별자리는 단순한 별 그림이 아니라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고, 서양이나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관측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의 장식적인 별 그림들과 달리 고구려의 별 그림들은 별과 별 사이에 연결선이 뚜렷한 별자리로 그려져 있고 그 위치와 형태가 정밀하여 천문학적인 관측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또 동서남북으로 별자리들을 배치한 사방위 별자리 체계의 성립과 전체 하늘을 한번에 조망하도록 한 전천천문도의 구성은 고구려에 정합적인 천문 체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찾기 힘든 카시오페이아 별자리, 중국과 다른 형태의 북극삼성, 북극삼성과 황룡을 아우른 오방위-오신도 체계, 중국보다 앞선 시기에 그려진 28수 별자리 등은 고구려 천문이 당시 동아시아 천문에서도 탁월하고 독자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리적 특징



<은평의 물형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로 변에 위치한 은평구의 구조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다. 은평구의 지형적 특성을 공부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보자.

알다시피 한반도는 풍수지리 물형론으로 설명할 때 맹호비상형이다. 하지만 일제시대 일본인들은 한국민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토끼형으로 왜곡하였었다. 이에 반해 은평구는 물형론으로 볼 때 국구비천형이라고 한다.

어쨌든 서울시 위정자들은 서울의 지형을 비둘기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은평구 구파발지역의 통일로를 고양시 동산동과 원칙 없이 이상한 경계로 구분해 놓았다.

자 어떠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사진을 보도록 하자.



(3) 자연 환경

은평구는 서울의 최서북단 지역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생활에 이로움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수도 서울 외곽의 요충지가 되어, 고대로부터 나라에서도 중히 여겨왔던 천혜의 생활터전이다. 또한 북한산(삼각산 : 836m)이 시가지 우측에 남북으로 접해 있고, 그 진산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들이 평지를 둘러싸고 있어 시가지 전체는 장방형의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서울 도심으로부터 약 7km정도 떨어져 위치한 은

평구는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통일로를 비롯한 증산로와 수색로 등 주요 간선도로들이 방사선 모양으로 이어져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판문점과의 거리가 40km로 지역 방위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청되는 서울의 관문으로 21세기 통일을 대비한 통일 한국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과 인접하여 동쪽은 종로구, 남쪽은 서대문구, 마포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과 북쪽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접해 있다.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남북회담 왕래도로였던 통일로가 은평구의 행정 및 생활권 중심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서오릉로와 수색로 등이 구 경계를 따라 이루어져 주변 지역과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주요 외곽 교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일산 신도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과 북방교역을 위한 경의선 철도와 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의 개통으로 지역개발에 한층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은평구의 면적은 약 29.7km²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4.9%이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넓다. 인구는 약 50만명이고, 행정동으로는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주거지역은 13.45km²(45.3%)이고 상업지역은

0.345km²(1.2%)이며, 그 밖에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녹지지역이 15.91km²(53.5%)인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다. 은평구에서는 진관내동과 외동이 19.3%, 19.4%로 전체 면적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가지 주변이 북구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며 토박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가 지역은 녹번동 삼거리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응암지구가 기성시가지이고 북쪽으로 불광동, 연신내지구는 신흥 시가지이며, 수색지구는 은평구 서쪽에 위치하여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4) 은평구 약사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한 은평구는 산수가 수려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예로부터 저마다 살기를 원했던 천혜의 생활터전이다.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북한산)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들이 평지를 둘러싸고 있어 농경생활에 이로움은 물론, 북한산성과 양철평 교장 등 군사적으로도 서울 외곽의 요충지가 되어, 고대로부터 나라에서도 중히 여겨

왔던 곳이다.

또 통일로는 과거 중국을 오가던 사신이나 북쪽 국경의 소식을 전달하던 파발로인 서발의 간선도로로 교통의 요지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이미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기인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을 응암동 출토의 청동 투겁창 유물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후 기원전 18년에는 백제를 세운 온조와 비류가 북한산의 인수봉, 백운봉에 올라 이곳을 나라로 세울 땅으로 살피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후 백제는 북한산 아래 하북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이러한 백제의 역사적 사실들은 은평구와 주변 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등으로 증명되고 있다. 은평이 위치한 한강 하류 유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서로 통제·수비하던 군사적 요충지이며, 이러한 영토의 중요성 때문에 삼국의 세력이 늘 충돌하던 격전지였다.

한편 백제에 이어 553년 신라의 영토가 되어 신주라 불렸다가, 668년 삼국통일 후 한산주가 되었다. 이어 고려 태조 23년 양주로 고쳤고,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 5년(1396) 4월에 한양을 한성부라 개칭하여 나라의 수도

로 삼고, 한성부를 5부(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와 52방 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개편하였다.

북부는 5부 중의 하나로서, 도성 안에 광화방 · 양덕방 · 가회방 · 안국방 · 관광방 · 진정방 · 순화방 · 명통방 · 준수방 · 의통방 등 10개 방이 있었다.

그 후 큰 변화가 없다가 영조 때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영조 27년에 반포된 수성책자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명통방을 폐지하고 성 밖에 상평방 · 연은방 · 연희방을 신설하여 12개 방이 되었다.

은평지역은 이 때 북부에 속하게 되었고, 영조 27년에 북부 중에서도 성외인 연은방과 상평방에 속하게 되었다. 구의 명칭인 은평이란 이름도 바로 이 두 방의 이름에서 한 자씩을 따온 것이다.

1911년 4월 1일에 경기도령 제3호로서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개정하여 도성 안을 5부 36방으로 하고 도성 밖을 8면으로 하는 5부8면제를 실시할 때 연은방과 상평방은 경성부 은평면으로 연희방은 경성부 연희면으로 바뀌어 북부에서 제외되었다.

합방 후인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으로 되었으나, 해방 후 서기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 제161호에 의해 은평면

의 전 지역이 다시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자 서대문구에 소속되어 신설된 은평출장소의 관할하에 있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리와 진관내.외리를 서울시로 편입하였고, 197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해 서대문구에서 분구하여 출장소를 폐지하고 은평구(15개동)가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5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다음 해 9월 1일 이후 행정동 20개동, 법정동 13개동으로 늘어났다.

2007년 8월 13일 법정동인 구파발동, 진관내.외동이 하나의 진관동으로 통합되면서 법정동 11개동, 행정동 19개동으로 되었다가 2008년 6월 불광3동, 응암4동, 역촌2동이 인근동과 통합되어 11개 법정동에 16개 행정동(주민센터)이 되었다.

1. 은평구의 문화와 예술

(1) 은평구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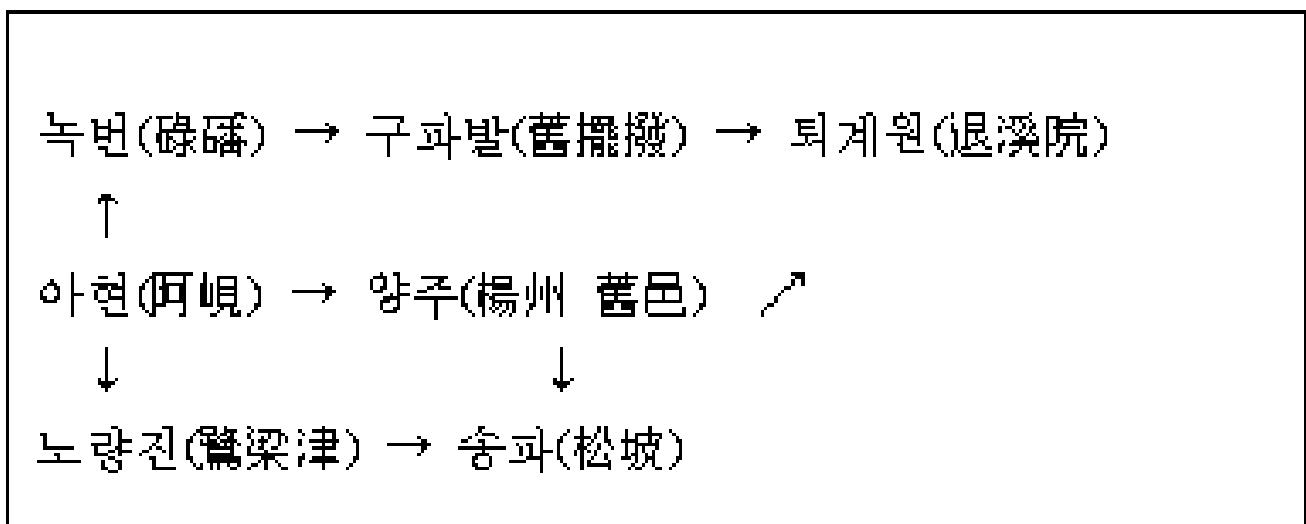
1) 우리 고장에 어떤 민속놀이가 있었을까?

이번 장에서는 우리 고장의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과거 중국으로 가는 사행로였던 통일로 일대에는 '구파발 산대놀이', '구파발 꼭두각시

놀이' 공연이 이어져왔고, '구파발 단오놀이'가 해방 후에도 행해져 왔으나, 산업화와 핵가족제도로 인해 현재 그 맥이 끊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고장 민속놀이의 실체를 이해하고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구파발 산대놀이

구파발 산대놀이는 구파발 일대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탈춤의 하나인 서울 본산대놀이의 한 유파이다. 산대놀이란 서울 근교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을 말한다. 조선조에 한양(오늘날의 서울)에는 본산대놀이라 하여 탈춤의 여러 유파가 있었는데, 최상수는 산대놀이를 아현(애오개), 구파발, 녹번, 노량진, 송파, 양주의 산대놀이를 꼽고 다음과 같은 전파경로를 밝히고 있다.



놀이' 또 이두현은 산대놀이로 녹번리, 애오개, 노량진, 퇴계원 사직골 딱딱이패를 꼽았다.

대구대 박진태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산대놀이의 거주지로 한양 도성 안에 사직동, 북방에 녹번리, 서방에 애오개, 남방에 노량진, 동방에 퇴계원이 위치하여, 사직단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의 관문(나루터, 고개, 역원)에 거주하면서, 공중 행사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 구파발 산대놀이의 연희자로는 윤희중이 유명한데,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인 '송파산대놀이'를 복원한 인물로 유명하다.

즉 연희자의 한사람인 허호영의 말에 의하면 약 200년 전부터 송파산대놀이가 창성되었으나 중도에 쇠진되었던 것을 1900년부터 송파에 거주하는 허윤에 의해 구파발 본산대 연희자 윤희중을 초빙하여 재건하고, 그 뒤 연중행사로 정월 보름 · 단오 · 백중 · 추석에 놀았는데 7월 백중에는 크게 놀았다는 것이다. 1924년에는 큰 규모의 산대놀이 모임을 송파에서 열었는데 이때에 구파발 · 아현 · 퇴계원 · 의정부 · 노량진 등지에서 20여명의 이름 있는 연희자들이 모였다고 한다.

또한 1930년대에 필사된 양주별산대놀이 김지연본의

제보자인 조종순은 양주별산대놀이 또한 구파발 본산 대놀이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구파발 산대놀이에서 사용되던 탈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구파발 산대놀이를 복원한다면 우리 지역의 큰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계원 산대는 바로 구파발 산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퇴계원 산대놀이가 1998년 관계자 여러 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또 2002년 9월 30일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내 특설무대에서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원장 홍헌일) 주관으로 애오개 산대를 복원한 '서울 본산대놀이' 시연행사가 있었고, 2003년에는 본 행사를 재연한 바 있다.

고무적인 일은 2007년 3월 필자의 요청에 의해 구파발 산대놀이에 사용되던 탈 12점이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양종승 전 연구관(현 샬머니즘 박물관장)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또 최근에 필자는 작고한 민속 학자 최상수 교수의 논저 속에서 1935년에 촬영된 구파발 산대탈 20점(목제탈 6점, 바가지탈 14점)과 1941년 촬영된 구파발 산대탈 25점, 연희 장면 4컷(노장 중 과장 장면 2컷, 원숭이놀음 장면 2컷), 연희자

고 김창엽옹, 가면 제작자 고 진성복옹과 함께 찍은 사진 1컷을 확인한 것이다.

만약 구파발 산대놀이나 녹번이 산대놀이가 복원된다면 은평구를 대표할 또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리라 생각한다. 구파발 산대놀이가 하루 빨리 복원되어 은평구민과 서울 시민의 민속놀이로 사랑받을 날을 고대해 본다.

◎ 구파발 꼭두각시 놀음

과거 우리 지역의 민속놀이로는 구파발 산대놀이 외에 '구파발 꼭두각시놀음'이 유명했다.

구파발 꼭두각시놀음은 마을 단위로 전승되던 인형극이다. 인형을 조정하는 인형사는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마을 제사나 특별한 잔치날에 공연을 놀아주거나 겨울철 등 농한기에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꼭두각시놀음의 전승지역을 조사한 일본인 학자 미타무라 도비우오의 다음 논문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는 1932년 서울에서 구파발 꼭두각시놀음을 조사하고 그 전승집단과 연행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파발의 인형은 마을의 공유물로서 그 공연에 대하여 익숙하다. 현재 인형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고 무엇인가 본업을 지닌 이외에 인형의 조종은 부업으로 하고 있다. 구파발의 패거리도 마을의 제례나 특별한 잔치날에 공연을 다니는 이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돌아다니며 공연한다. 그리고 이런 것은 비단 구파발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한다.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의 각 지방에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팔도의 여러 곳에 인형놀이의 패거리가 있음을 알겠다.

◎ 구파발 단오놀이

과거 구파발 지역에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5월 5일 단오절이면 단오놀이가 성대하게 행해졌다고 한다.

이날 인근 주민들은 연신내 개천 근처로 몰려들어 씨름, 그네뛰기, 활쏘기 경연을 구경하느라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활쏘기는 내 건너편에 과녁을 향해 활을 쏘았다고 하며, 그래서 사장골의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한편 여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에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또 새강가에 커다랗게 기둥을 세우고 강쪽을 향해 그네를 탔다고 한다. 그네를 타는 곳은 땅이지만 힘껏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면 강물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되어 무섭기도 했지만 매우 신이 났다고 한다.

그 중에서 그네뛰기와 씨름은 단오행사 중 특히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한다.

2) 우리 고장의 전설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는 불광동의 밥할머니 이야기, 진관동의 여기서 전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치마부대를 지휘한 밥할머니

조선 중종 39년(1544) 지금의 불광동에 있는 밀양박씨 집안에서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임진왜란 행주산성 전투에서 여인들을 지휘하여 행주치마와 노적봉 전설을 남게 한 밥할머니랍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한 박선비는 곧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이는 첫눈에 보기에든 보통 아이보다 체구가 남달리 커보였어요. 박선비는 아이의 비범한 외모로 보아 분명 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며 곧 자신의 아내에게 진위를 물었어요.

“아들이오, 딸이오?”

“송구하옵니다, 서방님. 딸이옵니다.”

부인이 힘없이 대답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너무 심려마시구려.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될 게 아니오. 고생하셨으니 오늘은 편히 쉬시구려.”

박선비는 아이를 낳느라고 고생한 부인을 위로했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총명하여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고 어른스러워보였어요.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도 그 뜻을 거스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부모님과 동네 주민들의 칭찬을 들었데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든 늘 국가와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생활하였어요.

어느덧 아이는 성큼 자라 필대로 핀 한 송이 꽃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아버지인 박선비는 나이 20세가 되어 딸의 혼기가 차자 곧 이웃 마을에 있는 토호이자 명문가인 남평문씨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남편의 이름은 문옥형으로, 한성부 북부 연은방 불광산계에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만석지기 부호 집안이었어요.

할머니는 시댁이 워낙에 부유한 집안이라 부족한 것이 없었고, 남편인 문옥형과의 사이에는 외아들 문천립을 두고 있어서 결혼생활은 행복하기만 하였답니다.

하지만 평소부터 검소함이 몸에 밴 할머니는 가끔씩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해요.

시집온 후로부터 사랑으로써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 시부모와 남편을 공경하였으며, 근검으로써 집안을 다스리니 당시 이웃 마을까지 효부가 나왔다고 칭찬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선조 25년(1592년) 평온한 마을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몰려왔어요. 그것은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임진왜란이라는 왜적의 대규모 침략이었답니다. 당시 49세의 장년이었던 밥할머니는 피난집을 꾸리던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왜적과 싸울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남편에게 집안의 곡식을 조선군의 군량미로 사용하려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산속 동굴 속으로 옮겨 보관하게 했답니다.

당시의 임금님이신 선조는 피난 중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니 명나라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결국 병부상서 석성의 간청으.

로 원병을 파병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이에 따라 명나라 신종황제의 명을 받은 제독 이여송은 그해 12월 8일 편성을 완료하고 방해어왜총병관으로 4만 1천명의 주력군을 이끌고 25일 압록강을 건너왔답니다.

이듬해 1월 6일 평양성 밖에 집결하여 조선군 사령관인 도원수 김명원이 거느린 약 1만명의 조선군과 함께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 거느리고 있는 약 1만 5천명의 왜병과 치열한 접전 끝에 마침내 9일 평양성을 탈환했어요.

25일에 개성에 입성한 이여송은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한성을 수복할 진중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장수가 속히 서울을 치자는 급진론을 폈고, 조선의 도체찰사 유성룡 또한 속히 한성을 탈환하기 위해 출성할 것을 요청하자 그는 한성 탈환을 위해 남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먼저 명나라 장수인 부총병 사대수가 경기방어사 고언백의 길 안내를 받으면서 선발부대로 군사를 거느리고 25일 파주에서 서오릉의 창릉방면으로 나갔다가 왜장 가토오 미쯔요시와 마에노 마가야스등이 거느린 적의 수색대와 충돌하게 된답니다. 사대수는 불시

에 기습을 감행하여 미륵원 앞 싸움에서 왜적의 목 130여 급을 베 후 기병 2,3백기를 이끌고 적과 싸우다가 연서역에서 여러 겹으로 포위되고 만답니다.

그때 건장한 6척 장신으로 통이 큰 여장부였던 밥할머니는 남편에게 밤중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북한산 노적봉을 짚으로 둘러 노적가리처럼 위장하게 했어요.

이튿날 낮에 밥할머니는 함지박을 이고 창릉천으로 갔어요. 그때 마침 왜병들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멈, 대체 물이 이렇게 뿌연 까닭이 무엇이무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북한산 노적봉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길 보시우. 지금 저 산에 조선군 수만 명이 주둔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조선군이 군량미를 쌓아둔 노적가리라우. 마침 밥을 지을 시간이니 쌀 씻은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수?”

“그것이 사실이무니까?”

왜병 하나가 못 믿겠다는 듯 되물었어요.

그러자 밥할머니는 함지박을 내려놓고 보자기를 걸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수. 정 못 믿겠거든 여길 좀 보 시구랴. 글썄, 내가 방금 전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더니 군사들이 ‘쌀이 많으니 굶주린 백성들에게도 나누어준다며 얼마든지 담아가라’고 하기에 이렇게 담아오는 길 이라우. 그럼 볼일들 보시구랴.”

말을 마친 밥할머니는 종종걸음으로 총총히 사라졌어요. 적들은 할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더는 갈증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다투어 물을 마시고 끌고 왔던 말에게도 물을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 이 물을 마신 왜적들은 다들 배탈이 나서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고통스러워 오만상을 다 찡그리는 것이었어요.

밥할머니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총병 사대수는 이때를 놓칠세라 군사들을 독려하며 친히 선두에서 삼지창을 들고 적을 찔러 공중에 던지면서 진군의 북을 치게 하니 적들은 추풍낙엽처럼 공중에 날아가고 북소리가 땅을 흔들어서 혈로가 스스로 뚫리게 되었으며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는 모두가 밥할머니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으로 남편인 할아버지와 미리 짜고 한 일이었답니다.

왜적이 물러가자 할머니는 쉴 사이도 없이 도원수 권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적과 싸우기 위해 행주산성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근 마을의 싸울 수 있는 젊은 남녀를 모두 거느리고 남편과 함께 행주산성으로 들어갔어요.

벽제관 전투가 끝난지 겨우 2주 밖에 되지 않은 2월 12일, 행주산성을 향해 진격해오는 왜적을 상대로 남자들은 관군을 도와 활을 쏘며 싸웠고, 여인들은 밥할머니의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행주치마로 돌을 나르고 솥에 물을 끓이기도 하였으며, 부상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주먹밥을 만들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답니다.

또한 평소에 불심이 두터웠던 밥할머니는 많은 돈을 북한산 사찰에 희사하였으므로 주위로부터 '보살할머니'로도 불렸다고 해요.

이후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때는 이미 80세의 고령이었는데, 아들 문천립을 시켜 많은 군량미를 내놓기도 했답니다. 그러자 인조대왕은 문천립의 공을 잊지 못해 그에게 종2품인 가선대부의 위계를 내리고, 불광동에 3일 갈이의 땅을 하사했답니다. 또 별도로 성과 본관을 완산으로 바꾸게 하였다고 『남평문씨 충양공파보』에 기

록되어 있어요. 즉 종실인 전주이씨로 사성한 것이랍니다.

밥할머니의 사망년도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조반정을 한 해이거나 이로부터 몇 년 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밥할머니가 돌아가자 외아들인 문천립은 어머니를 불광동 건좌를 등진 언덕에 있는 아버지 문옥형의 묘에 합장을 하게 되요. 할머니의 사망소식을 들은 인조 임금도 할머니에게 정경부인을 봉하고 남편인 문옥형 할아버지에게는 가선대부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게 된답니다. 이후 효종 9년(1658) 고양군 신원동에 덕명교를 가설할 때도 밥할머니의 아드님이신 문천립이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거금을 희사했답니다.

밥할머니 묘소는 1975년 후손들에 의해 화장되기 전까지만 해도 불광동 150번지(대성주택 자리)에 남아 있었으며, 재실은 진관외동 186-2 폭포동 싱아굴에 있었으나 1957년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다고 해요.

오늘날 밥할머니 자손들은 그 많던 땅이 모두 밥할머니의 사패지라고 믿고 있답니다.

이곳 토박이들은 매해 가을이면 수확한 곡물을 '밥할머니 뭍'이라 하여 향아리에 담아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정월 보름날에 인
근 마을 토박이 주민들이 햅쌀, 백설기, 햇과일 등을 차
려놓고 제를 올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군요.

이처럼 밥할머니는 우리 은평 지역과 일부 인접 경기 지
역 주민들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밥할머니, 밥보시 할머
니, 팔죽할머니, 떡장수할머니, 고석머니 등 여러 애칭
으로 불리며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답니다.

밥할머니 석상은 원래 고양시 동산동 6번지 삼환석재
입구에 있었으나 1993년 통일로 확장공사로 인해 밥할
머니 전적지인 솟돌고개가 있는 고양시 삼송동 도화공
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동산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2005
년 10월 현재의 위치인 고양시 동산동 창릉 모퉁이공원
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답니다.

그해 11월 11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밥할머니 보존위원회 차동규 위원장을 비롯한 노인 15
명은 북한산이 보이는 밥 할머니 동상 앞에서 주민 100
여 명과 함께 할머니를 기리는 첫 제사를 지낸 후 해마
다 제사를 받들고 있답니다. 2006년 11월 1일 고양시 향
토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었답니다.

◎ 그대 여기서 죽었구려! : 여기서

진관내동 278번지에 있던 여기서란 연못에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일명 무영탑)에 얽힌 석공 아사달과 그의 부인 아사녀에 얽힌 영지 전설과 닮은 다음과 같은 군교와 기생에 얽힌 연인의 애절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조선 19대 임금이 숙종 37년(1711) 북한산성을 쌓을 때의 이야기라고 한다. 이 산성축조에는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노역에 동원되었다. 그해 4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워낙에 큰 공사라 공사에는 각종 중장비가 동원되었다. 당시 장비 중에는 오늘날의 기중기에 해당하는 녹로를 비롯하여 지렛대, 달구지 등이 있었다.

크고 어려운 공사라 공사 중 사고로 다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심지어 죽어나가는 경우도 가끔씩 볼 수 있었다. 당시 조선 팔도에서 동원된 인부들은 급히 동원되어 잠잘 집이 없어 대부분 노숙을 하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남편을 이곳으로 보낸 가족들의 심정은 전쟁터로 남편을 보낸 것처럼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무사히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그때 공사에 동원된 한 군교를 만나기 위해 시골로부터

젊은 기생 하나가 남장을 하고 천리 길을 걸어왔다. 그녀는 그곳을 지키던 한 군사에게 사랑하는 연인과의 면회를 요청했다.

“시골에서 남편을 만나려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제발 제 남편을 한번만 만나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다행히 딱한 사정을 들어주고는 싶지만 상부의 명이 워낙에 지엄한지라... 미안하구려. 돌아가 잠시 기다리면 곧 좋은 소식이 갈 것이요. 다행히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사람이 된ديو.”

“알겠습니다, 나리. 정말 돌아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소.”

“그럼 수고하십시오, 나리.”

“고맙수, 곧 좋은 소식이 갈 거유.”

그러나 고향에 돌아가 기다리던 기생은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다시 공사장을 찾아 면회를 청했다. 이번에도 군사는 같은 말로 돌아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갈 것이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면회를 거절한 까닭은 옛날 관습에 나라의 큰 공사에 남녀가 만나는 것은 부정이 든다고 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는 가을에 접어든 9월 말경이었다. 그날 따라 하늘도 그녀의 슬픈 마음을 아는지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주위의 나뭇잎은 비바람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

상심한 그녀는 여기서 연못가에 앉아 연못을 내려다 보았다. 먼길을 걸어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지라 물위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여보, 서방님. 이 천천한 몸이 먼저 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오.”

말을 마친 그녀는 가냘픈 몸을 연못에 던졌다. 순간 물보라가 크게 일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보름 후인 10월 공사를 마친 군교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연못이 있던 인근에선 이미 소문이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곧 마을 사람의 인도로 그 연못을 찾았다. 연못 뚝에는 그때까지도 기생의 짚신과 쓰고 온 패랭이 모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애인의 유품을 보자 북받쳐오르는 슬픔을 누리지 못하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탄식했다.

“그대 이 연못에서 죽어단 말이오, 이 연못에서...”

그래서 이후부터 이 연못을 그 군교가 탄식한 말을 따

라서 너여, 여기기, 못소라고 하여 '여기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주택지로 변하여 전설만 전해질 뿐 연못은 메워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멀어져가고 있다. 여기소는 음이 변하여 인근 주민들은 예기수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 이 근처에는 이 연못의 이름을 딴 '여기소 슈퍼'와 여계소 노인정이 남아 있을 뿐 이 전설을 아는 노인도 거의 없다.

예전에는 흐린 날 비가 오는 가을밤이면 이곳으로부터 "여보! 여기소!"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진다.

그런데『만기요람』이란 책에는 이곳의 지명을 '여기소'라 기록하고 있어 실은 북한산성 축성에 동원된 군사나 장정들을 상대로 술이나 음식을 팔던 술집이나 음식점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 성능스님이 편찬한『북한지』「정계」편에는 " '여기연' 으로부터 지장리 마분까지 표를 세우고, 어영청에 소속시켰다"고 되어 있어 '여기소'를 '여기연'으로 표기하고 있다.

(2) 은평의 문학과 예술인

1) 은평의 문학인

◎ 녹번이 초당과 정지용 시인

작고한 정지용 시인의 장남인 정구관응의 말에 의하면 시인은 48년부터 50년 7월까지 고양군 녹번리에 사셨다고 한다. 그곳은 지금의 은평구 녹번동 126-10호로서 불광동 국립보건원 맞은편 약 100미터 떨어진 곳인데 해방 후에 그곳에 소도축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 다 선생은 기억자형의 초가집을 지었는데, 집의 구조는 안방과 건너방, 사랑채와 광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선생은 집 주변에다 딸기 등 과일과 채소를 가꾸며 두 문불출 집필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난 후 8월 어느 날 설정식 후배. 제자. 문인들과 함께 정치보위부에 나가 자수형식을 밟다가 잡혀 납북된 것이 자진월북으로 오인되어, 선생의 작품은 오랫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간조차 되지 못했다.

선생의 죽음에 대해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셋째 아들 구인씨는 95년 6월 북한 '통일신보'에 "아버지가 북으로 오던 중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 기슭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한에 살고 있는 구관웅과 막내딸
구원씨는 그동안 선생께서 평양교화소(교도소) 폭격으
로 사망했다고 믿어왔다. 이것은 4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계광순(90년 사망)씨가 50년 12월 펴낸 회고록에서
“정시인이 우익활동 혐의로 50년 7월 북한군에 의해서
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평양교화소로 이감돼
춘원 이광수와 같은 감방을 썼다”고 해 남쪽가족들이
그렇게 믿어온 것이라고 한다. 계씨는 그해 9월 23일
유엔군의 폭격 때 자신은 평양감옥을 탈출했지만 정시
인은 사망했다고 주장했었다.

1982년 6월 유족과 원로 문인, 학계가 중심이 되어 관
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는 시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해금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조치 이
후에 해금되어 비로소 선생의 시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
게 되었다. 선생의 대표작인 ‘향수’는 노래로도 작곡되
어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선생이 사셨던 녹번리 초당은 9.28 수복 때 UN군
의 장거리포에 맞아 불타버려 아쉽게도 볼 수 없게 되
었다고 한다.

2003년 5월에는 선생께서 문화 관광부에서 지정한 ‘이
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어 대대적인 학술 세미나와 행
사를 한 바 있다.

(2) 은평의 문화인

◎ 역관 김득련의 세계 일주

구한말의 역관이자 외교관인 춘파 김득련선생의 묘가 구파발 인공폭포 뒤쪽인 이말산 우봉김씨 선영에 있다. 김득련의 호는 춘파, 자는 윤구이다. 그는 1852년 (철종 3) 4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1930년 향년 79세로 타계하였다.

김득련 선생은 건양 원년 1896년(고종 33) 4월 1일(음력 19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민영환 공사를 수행해 2등 참서관으로 조선을 떠날 때부터 그해 10월 21일(음력 9월 15일, 러시아력 9일) 돌아오기까지의 노정()을 기록한『환구일기』와『부아기정』, 한시집인『환구음초』를 기록하여 서구의 실정과 문물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당시의 사행은 민영환을 특명전권공사로, 학부 협판 윤치호를 수원으로, 3등 김득련을 2등 참서관으로, 외부 주사 김도일을 3등 참서관으로 삼아 파견하였는데, 해외파견 사절 중 최초로 세계일주를 하였다.

난생 처음 떠나는 유럽으로의 사행에서 4인 4색의 모습을 보인 것도 당연하다. 대표적 사례 하나는 대관식이 거행되는 크렘린궁 우즈벤스키 성당 안으로 입장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다. 대관식이 거행될 성당은 작은 건물이라서 러시아 최고의 귀족이나 외국 사절 외에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관식이 거행되는 성당에 입장할 때는 누구든 모자를 벗어야 했다. 사행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행사 때 갓을 벗고 맨 상투로 참석한다는 것은 조선의 법과 관습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김득련은 우리의 전통 예에 따라 갓을 벗고는 대관식장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윤치호는 갓을 벗고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득련은 윤치호가 서양오랑캐의 문화에 중독되었다고 '도끼눈'을 부릅떴고, 윤치호는 김득련이 중화사상에 중독되었다고 되받았다. 이때 망설이던 민영환은 김득련의 주장을 따라 결국 성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대신 삼위일체 망루에서 대관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은 결국 러시아 황제 대관식 참석 사행으로 파견되었는데 정작 러시아에 가서는 식장에도 들어가지 않은 셈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갈등은 조선 사절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청국 사절도 그랬고, 터키와 페르시아 사절 등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도 '모자'를 벗고 참석하겠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는 등 다

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치호는 일행 중 한 사람인 '김씨(김득련으로 추정됨: 필자)가 사촌동생(?)에게 보낸 가신'을 그의 양해를 얻어 영역하고 이를 잡지에 소개한 바 있다. 윤치호에 따르면 '김득련'은 나이프와 포크의 사용, 서양 여성들과의 합석, 커피 마시기, 발레 구경, 테너 가수의 공연 듣기 등에서 겪은 일들을 두루 소개하면서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를 가신에 곁들였다.

동방예의지국의 나라 조선을 떠나 난생 처음 거대한 여객선에 몸을 싣고 보니 진기한 것 일색이로다. 이상한 색깔이지만, 눈 하나는 시원한 서양의 요조숙녀들, 어찌 그리 요란한 옷을 입고 있는가? 내 얼굴이 잘 생겨서일까, 아니면 남녀칠세부동석을 몰라서일까, 거침없이 군자의 옆자리에 다가와 재잘대누나. 양반네 진지상에 웬 쇠스랑(포크)과 장도(나이프)는 등장하는가. 입술을 찢기지 않으면서 접시의 물건을 입에 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역이구나. 희고 눈 같은 것(설탕)이 달고 달기에 이번에도 눈같은 것(소금)을 듬뿍 떠서 찻종지에 넣으니 그 갈색 물(커피)은 너무 짜서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더라. 노르스름한 절편(치즈)은 맛도 향기도 고약하구나.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목살에 힘줄

이 돌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테너) 모두들 그를 우러러 보더라. 서양에서 굳자노릇 하기란 원래 저리 힘든가보다.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빙빙 돌며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발레), 가녀린 남자를 학대하다니, 서양굳자들은 참으로 짐승이로구나.

이같이 요약되는 영문편지의 원본(한문 서간)은 문학적 묘미가 충분했을 것이다.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집안에 전해오는 많은 전적이 있었으나 일제하와 6·25 등을 거치면서 거의가 유실되고 말았다고 한다. 필자가 검토해 본 결과 다행이도 위의 문장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문이 『환구음초』에 엮여 있다. 따라서 그 영문 서간 내용의 원작자는 김득련이 틀림없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김득련은 이런 해학으로만 글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다. 편지 끝에는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및 유럽 각 도시에서 목도한 신문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가령 사행이 타고 가는 500 피트 길이의 기선은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찻주전자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차로 시간 당 4~50km를 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차를 이용한다면 가마꾼

이나 말구종과 다투지 않고도 하루에 조선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닿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10일 걸리는 것을 오늘의 조선 사정을 감안 할 때 얼마나 빠른 지를 말하고 있다.

그 외 뉴욕의 현수교, 센트럴 파크 등을 소개하면서 호텔의 '느려 터진' 웨이터 말고는 모두가 분주하고, 8층의 호텔에는 전화와 우체국, 서점, 신문국 등이 있어서 주사나 사동 없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의 여관은 미국의 호텔에 비하면 가마 같은 수준이라고도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속히 눈을 뜨고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글을 맺으며, 어머니는 무어라고 하실지 궁금하다고 하고 있다.

은평의 천재 풍속화가 신윤복

조선시대 한량과 기녀를 중심으로 한 남녀간의 낭만이
나 애정을 다룬 그림을 주로 그린 풍속화가 혜원 신윤
복이 은평 출신의 위대한 화가임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윤복의 본명은 가권. 본관은 고령. 자는 입부, 호는
혜원으로 1758년(영조 34)에 화원이었던 신한평의 아들
로 태어났다.

신윤복 집안의 족보에 의하면 그는 세조 때의 공신인
신숙주의 막내 동생인 귀래정신말주의 11대손이자 안
협 현감 신공섭의 9대손이다.

안협공 신공섭의 둘째 부인이 광주이씨묘가 있던 갈현
동 14번지광주이씨 묘 위쪽에 공섭 이하 선대 묘가 있
었고, 신윤복의 묘도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약 1만여평쯤 되던 묘역은 일제시대 소화연간인
1930년도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2010년 문
중에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 선산에다 설단을 하였다.
부친 신한평과 역시 도화서 화원으로, 특히 신한평은
영조와 정조의 어진 제작에 참여했으며 초상화뿐 아니
라 산수화와 화조화에 뛰어났다.

신윤복은 집안의 대를 이어 어려서 그림에 입문해 화원

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전해질 뿐 거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남녀 간의 춘정을 즐겨 그린다는 이유로 도화서에서 쫓겨났다고 전한다.

신윤복은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풍속 화가로 지칭된다. 그는 풍속화 외에도 남종화풍의 산수와 영모 등에 재능을 보였다. 일찍이 아버지의 화법을 익혔고, 선배 화원이자 당시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김홍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그림과 글씨를 보면 서체나 수파묘, 하엽준법 등에서 김홍도의 화풍이 변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 아래에서도 신윤복은 자신의 화풍을 개척하여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는 독특한 풍속화를 발전시켰다.

신윤복은 소재 선정부터 필법과 구성, 색채 표현에서 김홍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김홍도가 소탈함과 익살이 깃든 서민층의 풍속을 다룬 것에 반해, 신윤복은 양반층의 풍류나 남녀 간의 연애, 향락적인 생활을 주로 그렸다. 김홍도는 선이 강하고 빠른 반면 신윤복의 선은 가늘고 유연하다. 김홍도는 주제를 살리기 위해 배경을 생략하는 구성을 즐겼지만, 신윤복은 오히려 치밀한 주

변 배경 묘사로 주제를 부각시켰다. 채색도 옅은 갈색으로 되도록 절제한 김홍도에 비해 신윤복은 부드러운 담채 바탕에 빨강, 노랑, 파랑의 산뜻하고 또렷한 원색을 즐겨 사용했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무엇보다도 남녀의 애정행각을 다룬 에로틱한 표현의 충의도가 많다. 이는 조선시대 성리학 이념의 폐쇄적 굴레에 반하는 획기적인 일로 그는 양반귀족들의 위선과 불륜을 대담하게 파헤치고 풍자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이고 은폐되었던 면을 화폭에 담아냈다. 또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존재감을 얻지 못했던 여성들을 작품에 등장시키고, 더욱이 조선시대 가장 천한 신분인 속천에 속했던 기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기방이나 여숙에 대한 관심을 고도의 회화성으로 끌어올렸다. 신윤복이 이러한 풍속화를 그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이어지는 시대 변화와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이 컸다. 조선 후기 서민 지주들은 초기 상업화 과정에서 경제력을 축적하여 양반 못지않게 생활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전통 사대부와는 다른 취향을 가지고 풍속화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신윤복은 양반 사대부의 고리타분한 체면 문화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이 걷고자 하는 길을 걸었다.

다. 더군다나 제도권에서 쫓겨나면서 더욱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소재에 몰입할 수 있었다.

신윤복은 풍속화를 통해 시대를 고발하거나 비판하기 보다 현실을 긍정하고 낭만적인 풍류와 해학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녀 간의 성 풍속을 과감하게 화폭에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조선시대 사회풍속의 숨겨진 이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풍속을 도회적인 세련된 감각과 섬세한 필치로 형상화하여 조선시대 풍속화의 영역을 보다 다채롭게 넓혀 주었다. 그의 작품은 미술사 연구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생활사와 복식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간송미술관 소장으로 국보 제135호로 지정된 『혜원풍속화첩(혜원전신첩)』(18세기 말~19세기 초)이 전해진다.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을 1930년 전형필이 대판의 고미술상에서 구입해와 새로 표구하였다. 이때 오세창이 표제와 발문을 썼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시를 통해 외국에도 잘 알려진 그림이다.

화첩에는 <청금상련> · <기방무사> · <청루소일> · <월하정인> · <월야밀회> · <춘색만원> · <소년전흥> · <주유청강> · <연소담청> · <상춘야흥>

> · <노상탁발> · <납량만흥> · <임하투호> · <무녀신무> · <주막> · <쌍검대무> · <휴기답풍> · <쌍륙삼매> · <문종심사> · <노종상봉> · <계변가화> · <정변야화> · <삼추가연> · <표모봉심> · <야금모행> · <유곽쟁웅> · <이승영기> · <단오풍정> · <홍루대주> · <이부탐춘> 등 30점이 실려 있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탄금》 등 6점으로 된 화첩 또한 명품이다. 아울러 초상기법으로 그린 《미인도》(19세기 초)는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 걸작으로 손꼽힌다.

◎ 한석봉과 쌍벽을 이룬 명필가 이해룡

경천군 이해룡은 조선 선조 때의 이름난 통역관이자 사자관이다. 자는 해수, 호는 북악이다.

일찍이 사자관으로서 통신사 황윤길을 따라 일본에 가 많은 필적을 남겼다.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역관으로 일본과의 화평교섭에 관여하였다.

1595년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1602년에는 사섬시 주부가 되었고, 호성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어 경천군에 봉

해졌다.

해서를 특히 잘 썼으며, 당시의 대가인 북저 김류는 그를 평해 석봉 한호에 필적하는 명필이라고 격찬하였다. 당시 임금인 선조도 그의 글씨를 무척 애지중지하였다고 한다.

『역경』을 써서 바친 일로 왕의 격찬을 받고, 은상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 서체가 그야말로 절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부장되어 능침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필적으로는 선조에게 써서 올렸던 천자문과, 임진왜란에 조선에 원병으로 나왔던 명나라 장수 양호 활약상을 그린 '사현의 양호거사비' 보물 제813호인 창덕궁 인정문 편액이 남아 있다.

현재 경기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78번지에 있는 그의 생가는 1985년 9월 20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3호로 지정되었다.

◎ 경천군사패금송비

경천군 사패금송비는 진관동 중골 마을 내시묘역길 입구에서 북한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소로를 따라 약 100m 정도 내려가면 능선과 능선 사이에 소곡부가 나온다.

이 소곡부의 소로 위에 송금물침비 1기가 서 있다.
이 비석은 경주이씨 북악파 파조로 조선 선조조에 통역
관이자 사자관으로써 공을 세워 호성원종공신 1등에 책
록되어 국가로부터 이 지역에 땅을 하사받은 경천군 이
해룡의 사패지 내에서 벌목을 금지하는 금표비이다.
양식은 2면비로 묘역의 입구에 세웠다.
비신 전면에는 「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 후면
에는 「만력사십이년갑인십월일립」(1614년, 광해군 6)
이라 새겼다.
한편 진관동 273-2에는 2번째 경천군 사패금송비가 발
견되어 소재확인 중에 있는데, 비신 전면에 「경천군 사
패정계내 금송물침비」라 적혀 있어 송금이 금송으로 2
자의 표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조선의 서화가 임득명

조선 후기의 서화가이자 여항시인인 임득명의 유허비
가 불광동 한국기독교 수양관 안에 있다. 임득명의 본
관은 회진. 자는 자도, 호는 송월헌이다. 『옥계사』란 시
화첩 의하면 그는 1767년(영조 43) 1월 19일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회진임씨 족보에는 1822년(순조
22)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관직은 규장각 서리를

지냈다.

유재건이 지은 『이향견문록』에 의하면, '시부서화를 잘 하고, 전서와 예서에 뛰어났다고 한다. 또 옥계사의 시첩 머리에 그림과 전서로 그려 넣고 시로 화답하여 삼절로 불렸으며, 산수화를 즐겨 그렸다고 되어 있다. 최북·임희지 등과 함께 송석원시사 한 구성원이었으며, 그림은 정선의 진경산수화법을 배웠다고 전한다. 유작으로는 서울에서 의주까지 실경 6폭을 담은 <서행 일천리>(개인 소장)라는 장권의 서화축이 대표작으로 꼽히며, 종이에 담채로 그린 <고정관폭도>를 비롯하여 <송월헌화첩>등이 전한다. 『풍요삼선』에 그의 시 16수가 전하며, 문집으로는 『송월만록』이 있다. 『송월만록』 권1에는 시 307수, 권2에는 시 271수, 권3에는 시 236수, 권4에는 시 282수, 권5에는 시 17수, 권6에는 시 70수로 도합 1,133수의 시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과거 수양관 안에는 회진임씨 4세인 절충장군 함, 5세인 현신교위 효립, 6세인 증부 주부를 지낸 여항시인 춘양, 7세인 여항시인 성원, 8세인 필창, 9세인 득명의 묘가 있었으나, 후손이 묘지 일대의 땅을 수양관 측에 매각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감에 따라 현재는 그곳에 임득명 추모비(2001년 세움)만을 세워 보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너, 나, 우리,
함께 숨 쉬는 인문학 여행3

별자리에

비취본

우리나라 신화

3차 탐방 일정

일시 2014년 10월 18일(토)
 10시 00분 ~ 18시 00분

장소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

일정 답사를 위한 사전 강의

남양주 박원종 묘 삼족오 태양
과 옥토끼 월상 묘표석

변안열 묘 삼족오 태양과 옥토
끼 월상 묘표석

광해군 묘 일월상 묘표석

교수 김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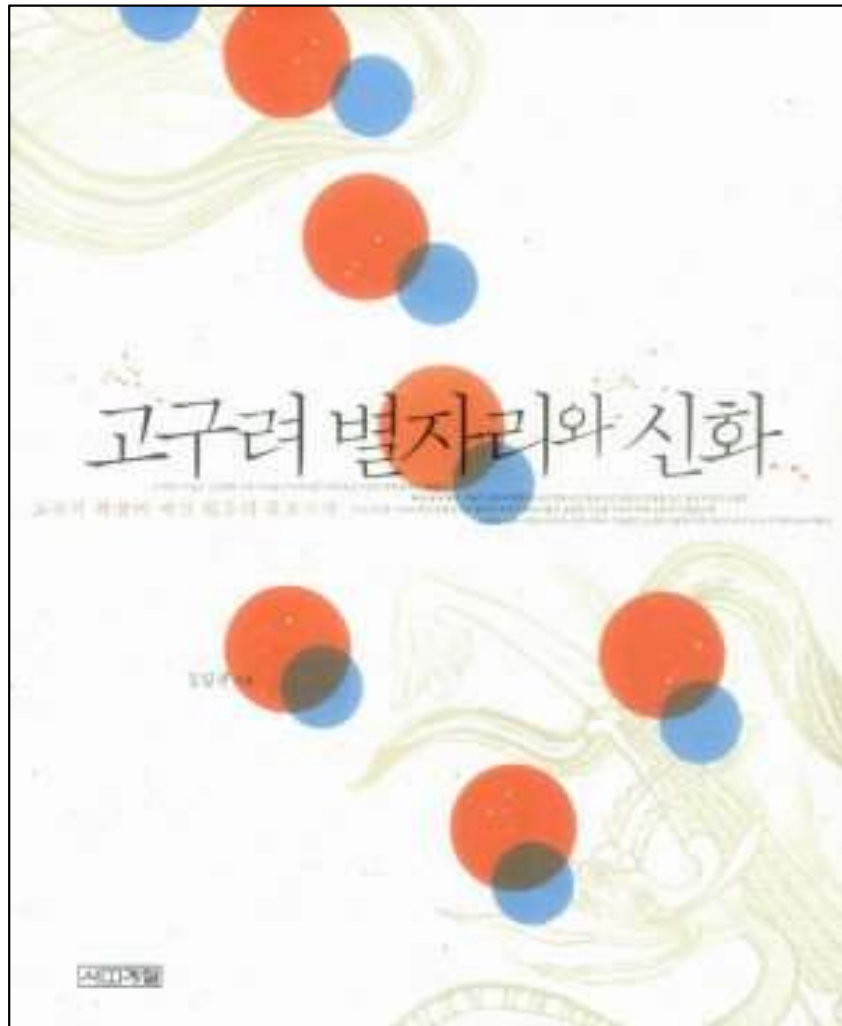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생물학과 졸업 (이학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졸업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등
다수의 책 저술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재임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임

(namdukim@hanmail.net / 010-3548-0811)

대표작 소개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글 김일권 / 사계절 / 2008년

기존 분과학문인 역사학, 종교학, 천문학의 학제 간 경계를 넘어 역사천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낸 연구이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 연구는 과학사로 분류되는 천문사와 한국 고대사, 종교사상사 등으로 확장된다.

고분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별자리는 단순한 별 그림이 아니라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고, 서양이나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관측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의 장식적인 별 그림들과 달리 고구려의 별 그림들은 별과 별 사이에 연결선이 뚜렷한 별자리로 그려져 있고 그 위치와 형태가 정밀하여 천문학적인 관측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또 동서남북으로 별자리들을 배치한 사방위 별자리 체계의 성립과 전체 하늘을 한번에 조망하도록 한 전천천문도의 구성은 고구려에 정합적인 천문 체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찾기 힘든 카시오페이아 별자리, 중국과 다른 형태의 북극삼성, 북극삼성과 황룡을 아우른 오방위-오신도 체계, 중국보다 앞선 시기에 그려진 28수 별자리 등은 고구려 천문이 당시 동아시아 천문에서도 탁월하고 독자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세계

1. 우리에게 사라진 하늘제사와 신년 축제문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늘을 직접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는 문화의 방정식이 상실되어 버렸다. 고구려인이 매년 10월이면 국중에 모여서 대회를 열었던 동맹제천의 역사, 부여인이 매년 12월에 벌였던 영고제천의 축전, 이러한 하늘 제사와 하늘 축제 문화가 고려시대를 통하여서는 11월 보름 팔관대제, 정월 원구제천으로 더욱 다원화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온 나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국가적 제전의 성격이었기에 당시 사회의 통합과 인간 사유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장치이기도 하였다.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존재는 아니나 이처럼 한국 고대인이 남겨놓은 하늘의 역사는 하늘과 인간의 두 세계를 무던히도 하나의 관계망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동아시아 세계관의 주요 특징이기도 한 천인상관의 방정식은 전통시대를 지탱하였던 커다란 사유의 축이었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친환경적이고 조화로운 자연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생태자연학의 새로운 테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하늘과 가까이 살아왔던 우리 역사 속의 별자리

이야기와 그 천문의 상상력을 살펴보아, 한국사에 흘러 있는 하늘에 대한 사유의 흐름을 짚어내고, 동양과 서양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문제 등을 비교하면서, 우리 문명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코스모로지 특성을 탐색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 인문학이 내놓아야 할 중요한 테제일 것이다.

▷ 우리에게 사라진 하늘제사와 신년 축제문화

부여의 은정월(12월) 영고 제천 / 고구려 10월(상달) 동맹 제천

고려 11월(중동) 보름 팔관대회 / 서경 10월 보름 팔관대회

고려 정월 원구 제천 / 조선 정월 원구단 제천

▷ 하늘 - 사회 통합과 인간 사유의 구심력 → 국가제전

사회 통합의 문화장치

하늘의 경험과 사유의 지평

하늘과 인간을 넘나들던 천인상관의 친자연주의 원천

➔ 21세기 하늘의 복원과 문화의 복원

2. 하늘 - 사회 통합과 인간사유의 구심력

하늘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넓고도 푸른 하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배후이자 우리 사유의 상상력을 한없이 자극하는 무한한 존재로서 긴 우리 역사 속에서 가까이 숨쉬어 왔던 우리 삶의 구성분자이다.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이 하늘을 모든 사유의 근거와 원천으로 중시하였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의 상관틀로 묶어내는 삼재합일 세계관을 발달시켰다.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닌 천지인의 세 요소가 생래적으로 상관된다고 보았기에 삼재라 하였으며, 이 때 재는 근본이란 뜻이어서 다른 말로 천지인은 존재의 삼원이 되는 것이다.

공자가 논어에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더 이상 빌 곳이 없다고 한 것은 하늘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궁극임을 언명한 것이다. 인간이 하는 일을

하늘이 일일이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은 우리 동아시아 세계관의 주요 기저인 바, 유교와 도교 및 불교를 막론하고 하늘에 관한 논변인 천론 내지 천학을 발달시켰고, 하늘의 지극한 명령을 천명이라 하였으며,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이 천명에 근거한 것이라는 생각이 증용의 천명지위성이란 명제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하늘은 말이 없는 원원한 궁극자이므로 자신의 뜻을 간접적인 방식인 천변과 지이를 통해 드러낸다는 생각을 발달시켰는데, 이것이 공자의 춘추재이론이다. 천변은 일식과 월식 또는 무지개 등의 천문현상을 이르고, 지이는 홍수나 화재와 같은 지변현상을 이른다. 인간의 종주로 자리하는 군주야말로 이들 천변과 지변현상을 잘 관찰하기를 요구받았는데, 제왕의 잘잘못을 최종적으로는 하늘이 징벌하고 포상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월식의 천변현상은 매우 큰 하늘의 징벌적 표상이어서 이를 제대로 관찰하여 하늘

의 뜻을 올바르게 실현하기를 요청받았다. 동아시아 역사가 천문학을 발달시킨 근거가 바로 이러한 천인상관의 춘추재이론 관점에서 입론되어 있는 것이다.

서양의 세계관이 궁극적 존재자로 하늘 대신에 위대하고도 유일한 신을 설정하고서 그 신의 의지와 표상을 읽으려 수천년간 노력하였던 결과 모든 학문의 바탕에 신학이 자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양의 세계관에서는 유일한 신이 아니라 비인격이지만 인간의 품성을 가진 하늘을 내세워 지난 수천년간 사유하고 섬겨왔던 까닭에 동양의 모든 학문의 바탕에는 천학이 널리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읽는 독법의 주된 키워드가 하늘에 주어지는 것이며, 서양 문화가 신의 문화사라면 동양 문화는 하늘의 문화사라 하게 되는 것이다.

- ▷ 공자의 논어 획죄어천 무소도야 → 천론과 천학의 지향성
- ▷ 천지인 삼재의 합일 세계관: 삼재=삼원
- ▷ 천명 → 천명지위성 중용
- ▷ 하늘 → 천변과 지이 → 인간 : 추재이론과 천인상관 세계관의 방정식
- ➔ 제왕학으로서 천문학의 발달 근거
- 서양 세계관: 위대하고 유일한 신 → 신학의 발달 → 신의 문화사
- 동양 세계관: 위대하고 원원한 하늘 → 천학의 발달 → 하늘의 문화사

3. 동서양의 일월 관점과 보름달의 신화 차이

한가위라 불리는 추석 명절은 높아가는 가을 하늘에 벌이는 우리 민족의 대향연이다. 1년 중에 가을은 우리의 국토 산하가 가장 맑아지는 계절이며, 그 가을의 입구에서 만나는 추석날 둥근 보름달에는 우리 민족이 가꾸어온 아름다운 월 세계의 신화가 담겨있다.

흔히 하늘에 빛나는 것이 무엇 있을까 할 때, 해

와 달과 별의 셋이 있으니 이를 일러 삼광이라 일컬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그림 중에는 고구려와 고려의 고분벽화에서 숭하게 보이듯이 해와 달과 별자리의 세계를 천장 가득히 담은 삼광의 벽화 그림이 매우 발달하였다. 동쪽 하늘 천장에는 둥근 태양을 그렸고 서쪽 천장에는 둥근 달을 그렸다. 해와 달이 우리 역사 속의 하늘을 환하게 비추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서로서 너무나 당연할 듯한 이 해와 달의 이야기가 서양의 정서나 신화에 대비시켜 볼 때 사뭇 의외의 장면을 만나게 된다.

고대 이집트의 하늘에는 파피루스 그림에서 흔히 보이듯이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파라오의 왕권을 관장한다는 태양신 라(Ra)가 홀로 빛나는 태양 신화가 널리 발달하였고, 이집트를 병합한 고대 로마 제국이 이를 받아들여 유럽의 문화로 자리잡아 갔다. 이에 비해 달에 대한 생각은 점점 약화되어 중세 유럽 사회에 이르면 달이 뜬

밤에 마녀사냥을 벌이었던듯이 보름달을 상당히 음험하고 불길한 상징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서양적 문화에 바탕한 현대 영화나 소설, 만화 등에서 공포와 괴기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일 때면 대개 늑대가 울고 둥근 달이 뜨는 밤을 배경으로 삼는다. 달(lunar)에서 파생된 루네틱(lunatic)이란 말이 "광기 또는 미친"이란 뜻을 갖게 된 것도 그런 문화 배경에서 생성되었다. 영어 닉네임에 달(moon)이란 단어를 넣으면 서양 사람들 정서로는 매우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보름달은 음험한 상징이 아니라 원만함의 상징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름달만 같아라"는 덕담이 있듯이 둥근 달은 우리에게 완전함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문화 속의 달 그림이 초생달이 아니라 둥근 형태인 것도 이런 때문이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서양의 달력이 태양만을 강조하는 태양력 형식인 반면에, 우리의 달력이 해와 달을 둘 다 중시하는 태

음태양력 전통인 것도 달에 대한 신화와 정서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우리에게 달은 해와 더불어 짝이 되는 대등한 존재이다. 고대 신라의 신화 중에서 해와 달이 된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나, 둥근 달이 뜬 밤에 탐돌이를 하고 달맞이를 하는 풍속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런 정서의 반영이다. 가을밤이 익어가는 계절에 한가위 보름달을 기리는 추석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된 것에는 이렇듯 보름달에 대한 남다른 신화가 깔려있기에 가능한 문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의 세시민속 중에는 보름달과 관련된 절일이 많이 되었다.

1년에 열두번의 둥근 보름달이 떠오른다. 윤달이 든 해에는 또 한번의 둥근 달을 만난다. 이 열두 번 내지 열세 번의 보름달 중에서 유난히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아온 둥근 달은 설날 직후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달과 가을이 한창 익어가는

음력 8월의 한가위 보름달이다. 정월에 뜨는 대 보름달은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원의 의미를 담았고, 가을의 한가위 보름달은 여름 내내 자란 곡식이 완숙하는 것을 기리는 추수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공활한 천공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해마다 떠오르고 올해에도 다시 떠오른다. 해마다 달마다 어김이 없으니 장구한 영속성을 상징한다. 추석날 먹는 둥근 송편에는 이처럼 해와 달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유가 깊이 묻어있다.

3. 동서양의 일월 관점과 보름달의 신화 차이

한가위라 불리는 추석 명절은 높아가는 가을 하늘에 벌이는 우리 민족의 대향연이다. 1년 중에 가을은 우리의 국토 산하가 가장 맑아지는 계절이며, 그 가을의 입구에서 만나는 추석날 둥근 보름달에는 우리 민족이 가꾸어온 아름다운 월

세계의 신화가 담겨있다.

흔히 하늘에 빛나는 것이 무엇 있을까 할 때, 해와 달과 별의 셋이 있으니 이를 일러 삼광(三光)이라 일컬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그림 중에는 고구려와 고려의 고분벽화에서 술하게 보이듯이 해와 달과 별자리의 세계를 천장 가득히 담은 삼광의 벽화 그림이 매우 발달하였다. 동쪽 하늘 천장에는 둥근 태양을 그렸고 서쪽 천장에는 둥근 달을 그렸다. 해와 달이 우리 역사 속의 하늘을 환하게 비추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서로서 너무나 당연할 듯한 이 해와 달의 이야기가 서양의 정서나 신화에 대비시켜 볼 때 사뭇 의외의 장면을 만나게 된다.

고대 이집트의 하늘에는 파피루스 그림에서 흔히 보이듯이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파라오의 왕권을 관장한다는 태양신 라(Ra)가 홀로 빛나는 태양 신화가 널리 발달하였고, 이집트를 병합한 고대 로마 제국이 이를 받아들여 유럽의 문화로

자리잡아 갔다. 이에 비해 달에 대한 생각은 점점 약화되어 중세 유럽 사회에 이르면 달이 뜬 밤에 마녀사냥을 벌이었던듯이 보름달을 상당히 음험하고 불길한 상징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서양적 문화에 바탕한 현대 영화나 소설, 만화 등에서 공포와 괴기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일 때면 대개 늑대가 울고 둥근 달이 뜨는 밤을 배경으로 삼는다. 달(lunar)에서 파생된 루네틱(lunatic)이란 말이 "광기 또는 미친"이란 뜻을 갖게 된 것도 그런 문화 배경에서 생성되었다. 영어 닉네임에 달(moon)이란 단어를 넣으면 서양 사람들 정서로는 매우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보름달은 음험한 상징이 아니라 원만함의 상징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름달만 같아라"는 덕담이 있듯이 둥근 달은 우리에게 완전함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문화 속의 달 그림이 초생달이 아니라 둥근 형태인 것도 이런 때문이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서양의

달력이 태양만을 강조하는 태양력 형식인 반면에, 우리의 달력이 해와 달을 둘다 중시하는 태음태양력 전통인 것도 달에 대한 신화와 정서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우리에게 달은 해와 더불어 짝이 되는 대등한 존재이다. 고대 신라의 신화 중에서 해와 달이 된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나, 둥근 달이 뜬 밤에 탐돌이를 하고 달맞이를 하는 풍속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런 정서의 반영이다. 가을밤이 익어가는 계절에 한가위 보름달을 기리는 추석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된 것에는 이렇듯 보름달에 대한 남다른 신화가 깔려있기에 가능한 문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의 세시민속 중에는 보름달과 관련된 절일이 많이 되었다.

1년에 열두번의 둥근 보름달이 떠오른다. 윤달이 든 해에는 또 한번의 둥근 달을 만난다. 이 열두 번 내지 열세 번의 보름달 중에서 유난히 우

리 민족에게 사랑받아온 둥근 달은 설날 직후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달과 가을이 한창 익어가는 음력 8월의 한가위 보름달이다. 정월에 뜨는 대보름달은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원의 의미를 담았고, 가을의 한가위 보름달은 여름 내내 자란 곡식이 완숙하는 것을 기리는 추수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공활한 천공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해마다 떠오르고 올해에도 다시 떠오른다. 해마다 달마다 어김이 없으니 장구한 영속성을 상징한다. 추석날 먹는 둥근 송편에는 이처럼 해와 달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유가 깊이 묻어있다.

4. 하늘과 별자리를 담은 천문도

4-1. 한국 천문도의 역사

* 고구려에서 조선까지 흐르는 하늘의 역사

▽ 한반도 고인들의 별자리 유적

- ▽ 바위그림에 새긴 별자리그림 유적
- ▽ 천문의 유희와 놀이 : 윗놀이판의 천문과 천손 민족
- ▽ 고구려 별자리벽화고분(4 ~ 7세기) : 25기
- ▽ 일본 기토라고분 천문도 : 700년경 사규전천천문도
- ▽ 고려 능묘벽화의 천문도 (17기)
- ▽ 고려 치성광불천문도 (선조 2년, 1569)
- ▽ 조선 천상별차분야지도 (태조 4년, 1395)

5. 고구려 벽화의 천문학과 별자리 문화사

5-1. 고분의 나라, 고구려 고분유적

고구려 두번째 수도 국내성에는 1600년을 견뎌낸 수많은 고분들로 꽂들어차 있다.

만주와 북한의 고구려 무덤 13,000기 : 만주지역 1966년 당시 당시 11300기(봉토석실분 4321기, 적석묘 2886기 등)였던 것이 최근 1997년에는

3928기가 소실되어 6854기 가량 현존 환도산성 산성하 무덤떼, 국내성 우산하 무덤떼, 칠성산 무덤떼 등 고구려의 전통적 묘제는 돌로 쌓아 만든 적석묘→봉토적석묘→봉토석실묘(벽화묘) 수 많은 고분유적들은 문헌기록이 적은 고구려 역사가 되살아난 주요 기반

5-2. 벽화의 왕국, 고구려

칼라의 시대, 지금까지 120기의 벽화고분 발견

. 압록강 중심의 환인. 집안지역 38기

. 대동강 중심의 평양. 안악지역 82기

(*위진수당대 중국지역 벽화고분은 86기 가량)

압록강 일대	집안		환인		무순		소계 38기	총계 120기
	36기		1기		1기			
대동강 일대	평양시		남포시		평남		소계 82기	
	30기		24기		14기			

표 3 고구려 벽화고분 분포 (2011년 현재)

현재 고구려의 수많은 무덤 가운데 벽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덤은 대략 100여기 이상이며, 4세기에서 7세기 사이 약 30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축조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위진수당의 700년 동안(3~10세기) 그 넓은 중국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이 80여기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량이다.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크게 두 지역에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고구려 전반기의 수도 국내성이 자리하였던 압록강 중류 집안시 지역에 현재까지 38기가 발견되었다. 집안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이 위치한 곳으로, 2대 유리왕 22년(서기 3년) 겨울 10월에 고구려의 건국지였던 흘본(졸본)의 오녀산성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여 424년간 국가를 경영하던 곳이다. 오녀산성이 있는 지금의 환인지역과 신성이 있던 요녕성 무순에서 벽화고분이 2기 발견되었으므로, 만주의 집안과 환인 일대에 모두 38기가 있는 셈이다.

다음 장수왕 15년(427년)부터 241년간 고구려의 후반기 수도였던 평양일대에 안악지역 14기를 포함한 82기가 발견되었다.

5-3. 천문관측의 중심, 고구려식 북극삼성 별자리

씨름무덤/춤무덤 속의 북극3성 별자리
진파리4호분 금박천문도 속의 북극3성 별자리
고려 벽화 천문도에 계승된 고구려의 북극3성 별자리

5-4. 천문의 나라, 고구려의 사방위 천문체계

고구려 사신도와 사숙도 : 사방위 신수와 사방위 별자리
오신도와 오숙도 천문세계 : 우주의 중심과 천하의 중심

방위 \ 표지체계	① 사신도	② 일월상	③ 4방위 별자리
동	靑龍	日象	東心房六星 (전갈자리)
서	白虎	月象	西參伐六星 (오리온자리)
남	朱雀		南斗六星 (궁수자리)
북	玄武		北斗七星 (큰곰자리)
중	黃龍		北極三星 (작은곰자리)

표 4 고구려 고분벽화의 3중 천문 표지 체계

5-5. 고구려의 천하관과 황룡 우주론
 모두루묘지명의 천하사방과 추모성왕
 사신도벽화: 2신도 → 4신도 → 5신도
 평원왕 강서대묘의 천정황룡벽화
 집안오회분 4호묘의 북극3성 별자리와 황룡도

5-6. 고구려의 동서남북 별자리, 사숙도 이야기
 현대인에게 방위와 시간은 생활의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고대인들에게 방위는 자신의 공간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주요한 지표였다. 그래서 동

서남북 사방위에 우주론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상징 체계가 상당히 발달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쉽게 만나는 사방위 상징으로는 통일신라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사찰의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앞마당을 들어서기 전에 만나는 사천왕상 체계가 있다.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의 증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이라 불리는 이 네 하늘의 왕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키는 불교식 사방위 수호신이다. 고구려에서 시작하여 조선 시대에 널리 확산되었던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의 사신도 상징은 사방위 우주론의 대표적인 예이다. 성리학적 혈연주의가 발달한 조선에서 자기 가문의 영예를 앞세우는 배타적 조상 숭배 의식이 풍수지리적 발복 풍수 문화로 나타나면서 사신도적 방위사상이 매우 팽배하여졌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지만 고구려인들이 구축하였던 중요한 사방위 상징으로 사

속도라고 일컫는 네 방위 별자리 체계가 있다.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자리 중에서 고구려의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고유한 수호성이 있다는 생각을 표출한 것인데, 고구려 벽화고분에 묘사된 그림 속에서 쉽게 확인된다. 천정의 북쪽 하늘에는 북두칠성 별자리를, 남쪽 하늘에는 남두육성 별자리를, 동쪽 하늘에는 별자리를, 서쪽 하늘에는 별자리를 새겼던 것이다.

일단 이들 사속도 별자리는 별자리 모양에서 남북과 동서가 서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진다. 곧 북쪽의 북두칠성과 남쪽의 남두육성은 둘다 동일한 극자 모습을 취하였다. 동쪽의 심방육성은 들 입자 모양의 여섯 개 별로 구성되었고 서쪽의 삼별육성은 사람 인자 모양의 여섯 개 별로 이루어졌다. 고구려인들이 왜 이들 별자리를 방위 수호성으로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밤하늘의 지속적인 관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동입육성은 현대 서양식 별자리로 말하자면 봄철 밤하늘에 웅장하게 떠오르는 전갈자리의 일부(집게와 머리)이며, 동양식 별자리로서는 청룡 별자리의 일부(심장과 몸통)인 심수 3성과 방수 3성이 결합된 모양이다. 서인육성은 가을철 밤하늘에 높이 솟구쳐 장관을 이루는 오리온 별자리에 해당하며, 동양식으로는 백호 별자리의 호랑이 머리에 위치한 삼수 3성과 벌성 3성에 해당한다. 곧 오리온 별자리를 동양에서는 호랑이 머리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봄철의 전갈자리와 가을철의 오리온자리는 천구상 적경 위치가 180도 반대편에 자리한 까닭에 하나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하나가 서쪽 하늘 아래로 사라지는, 마치 거대한 하늘의 시이소오 놀이를 하는 관계를 가진다. 고구려인들은 바로 서로 대칭되는 이 두 별자리를 각기 동쪽과 서쪽의 방위 수호성으로 응립하였던 것

이다.

북쪽의 북두칠성은 그 밝기과 크기가 너무나 뚜렷하고 늘 북쪽 하늘에서 1년 내내 관찰되기 때문에 단연 북쪽을 지키는 방위 별자리가 되었다. 이에 대칭되는 남두육성은 고구려인들에게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액운을 극복케하며 복록을 담당하는 매우 상서로운 별자리였다. 이 별자리는 여름철 남쪽 밤하늘 은하수에 반쯤 잠긴 곡자 모양으로 관측되는데, 서양식으로는 반인반마 형상을 한 궁수자리의 일부이며, 동양식으로는 현무 별자리의 거북 머리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구려인들은 밤하늘의 별자리에서도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지키는 고유한 사속도 별자리가 있다는 매우 대담한 생각을 펼쳤다. 별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세계를 든든하게 밝혀줄 사방위 수호성을 엮었던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생각의 흐름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보이지 않게 되어 현재 우리에게 잊혀지고 말았다.

6. 하늘의 상실과 복원

6-1. 고려와 조선의 두 하늘과 하늘 인식의 변화

▽ 천문의 하늘과 이법의 하늘

고려조 다종교의 다원적 하늘 : 천문과 비천문,
도선과 불교의 하늘, 유교의 제천

조선조 성리학의 이법적 하늘 : 태극론,
태극도설, 상수학, 칠성신앙

▽ 하늘의 상실과 복원

조선조 제천의례의 혁파와 하늘의 봉쇄 : 소종화
의 세계성과 이념성

비선과 신화, 판타지와 천공의 하늘(고구려)

무상한 다원의 하늘(고려)과 이념의 하늘(조선)

국가천문과 민간천문의 분리 : 관상감, 칠정산내
외편 / 칠성각과 칠성신앙

▽ 고구려 천문의 계승 관계

일본 기토라고분 천문도 : 700년경 / 사규 전천
천문도

고려 능묘 천문도 (17기)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 4년(1395)

6-2. 고려 천문도에 계승된 고구려식 북극삼성 별자리

중국류 천문도에서 발견되지 않는 고구려만의 별자리로 천체 회전축에 놓인 하늘의 중심 별자리 북극삼성이 고려의 벽화에서도 다시 출현하고 있다. 북극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축의 끝을 천구로 한없이 연장하여 간 지점에 위치한 별로서, 모든 천체들이 이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전통 천문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런 사실을 두고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군주가 덕으로 정치하는 것을 일러 비유컨대 북진성이 그 자리에 있어 못별을 아우르는 것과 같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천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고려시대의 유물자료에서 또다시 북극삼성 별자리를 만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제20대 신종

의 양릉(1204년) 천문도에는 바깥 원주에 동양 별자리의 표준인 28수 별자리를 붉은 색으로 그렸고, 그 안쪽 중심부에 고구려식 북극삼성과 북두칠성을 역시 붉은 색 별자리로 묘사하였다. 고려말 파주 서곡리 벽화묘(1352년)의 천정석에는 흰색 원으로 천구를 표시한 가운데로 역시 북극삼성 별자리와 북두칠성을 커다랗게 묘사하였다. 12세기초 안동 서삼동 고려 벽화묘(12세기초)에서도 붉은 색 28수 별자리를 원주로 둘러싼 중심부에 더큰 붉은 원반으로 해와 달을 표시한 사이에 고구려식 북극삼성과 북두칠성 별자리를 그렸다.

한당의 중국류 천문도와 다른 독자적인 천문전통을 일구어나간 고구려 천문학의 고심이 반영된 대목이면서, 고구려와 고려의 천문학적 계승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를 통하여 고려가 고구려를 이었다는 역사적인 계승 측면이 더욱 공고해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벽화천

문의 전승이 고구려에서 고려로 1000년이 지나도록 이처럼 즐기치게 바뀌지 않은 점이 더욱 놀랍기도 하다. 중국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정체성이 천문의 문화성과 계승성으로 여실하게 작동된 결과일 터이다. 이처럼 고려는 고구려식 천문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유물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인이 남긴 천문 문화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2009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천문의 해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전천석각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라는 조선 초기의 걸출한 작품과 더불어 고구려와 고려의 천문 전통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 고대의 천문 문화가 더욱 빛날 것이라 전망한다.

7. 한국 고대인의 천상풍류와 하늘 지향성

문화

우리 문화에서 하늘은 서양 문화에서 신이 가지는 위치에 비견된다. 이 세상 만유를 창조한 위대한 존재로서 신에 대한 탐구와 신에게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확보하려 하였던 유럽 중세 신학은 서양 문화의 지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이에 반해 동양 문화에서 신이란 천신과 지신, 조상신처럼 애초부터 복수적인 의미로 출발하였던 까닭에 유일자로서의 신이란 관점이 성립되지 않았고, 대신에 무한한 허공의 하늘 자체를 지고한 존재자로서 신격화시킨 하늘 신학 곧 천학이 널리 발달하였다. 이 하늘 지향성으로 말미암아 광대무변한 하늘의 주재자가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요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그런 하늘이야말로 인간이 궁극으로 귀착하여야 할 존재의 근원이라는 천인합일적인 사유가 우리 문화 곳곳에서 발달

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유물자료로 확인되는 최초의 하늘신 이름은 광개토태왕비에 새겨진 황천상제였으며, 고려사의 숯한 기록에서도 성스러운 하늘의 임금이란 뜻의 황천상제와 천황대제, 넓은 하늘의 주재자란 뜻을 지닌 호천상제 등이 시기에 따라 잇따라 등장하였다. 하늘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였는가에 따라 지고신의 성격과 이름이 다르게 붙여진 것인데, 한 때는 밤하늘 별자리의 제왕인 북극성이 유일한 최고의 천제라는 뜻에서 태일신이라 불리워 숭신되었다.

이처럼 하늘을 향한 믿음이 강렬하였기에 하늘 제사 곧 제천의 역사 또한 필연적으로 발달하였다. 부여의 영고제천, 고구려의 동맹제천은 지고한 하늘에 대한 제사이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제를 벌이는 극중대회였기에 년중 행사 중 가장 성대한 잔치인 신년축전으로서 치러졌다. 고구려 벽화에서 천공을 달리며 노니는 비

선상이 매우 많이 그려진 것도 하늘을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상징한 사유의 결과물이다. 거문고를 켜고 장구를 치고 피리를 부는 선인들이 때로는 봉황과 백학을 타고 해와 달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천공이 놀이터인마냥 북두칠성 별자리에 걸터앉아 합주를 하는 모습은 한국 고대인들이 천상풍류의 이상향을 추구한 걸작들이다.

하늘에서 울리는 음악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는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 낸다. 해가 가장 짧은 동짓달에 울리는 리듬은 황종율이라 일컬었고, 12월의 소리는 대려율, 1월엔 태주율, . . . 9월에 무역율, 10월엔 응종율의 리듬이 울린다고 보았다. 이렇게 열두달을 순환하면서 다르게 발생하는 소리의 리듬인 까닭에 이들 12율려 체계는 곧바로 1년 12월을 구분짓는 시간의 리듬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전통시대 달력의 시간학을 지칭하는 용어인 율력이란 말은 소리(율)와

시간(력)의 근원이 같다고 본 인식의 반영이다.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여섯 줄 거문고, 일곱 구멍 피리, 열두 줄 가야금 등은 별들의 조화에서 나오는 하늘의 신비한 소리를 담아내는 악기들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천공에 건설한 이상처럼 하늘이 아주 낮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고 인간 속에서 하늘의 모습을 찾던 한국 고대인의 하늘 지향성 문화는 스스로 제후국을 자처하여 국가공식의 제천의례를 혁파한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점차 쇠퇴한 끝에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 높아서 다가설 수 없는 멀어진 하늘이 되고 말았다. 다시금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천공에 노니는 무한한 사유의 하늘을 펼쳐본다면 분별로 건조해진 현대인의 심성 저변에 화락()을 연주하는 하늘의 조화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 참고도서

김일권 저,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10)

동양천문사상 인간의 역사 (예문서원, 2007.10)
:2008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2008.9)
:2008년 KBS 책문화대상 빛나는역작대상후보 선정
2009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2008.12)
:2009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 선정
2010년 한국일보 제50회 한국출판문화대상 저작상 수상

김일권 역,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한중연출판부2011.10)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2012.5.4)

국역고려사 권14 지2



2014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당신을 여행작가로 만들어 드리는

위로와 성찰의 여행



4차 탐방 일정

일시 2014년 10월 25일(토)
 10시 00분 ~ 18시 00분

장소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

일정 답사를 위한 사전 강의
 점심식사 및 이동
 삼청공원
 말바위
 숙정문
 청운대
 창의문

작가 테오



1970년 3월 15일 서울출생.

시인을 꿈꾸던 소년.

현재까지 5권의 여행에세이를 출간한,
떠남이 아니라 향함의 여행을 이야기하는 작가.

졸업하지 않았지만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가난하지만 벤츠도 가졌었다.

입사 스펙도 안 되는데

대기업 직원들을 컨설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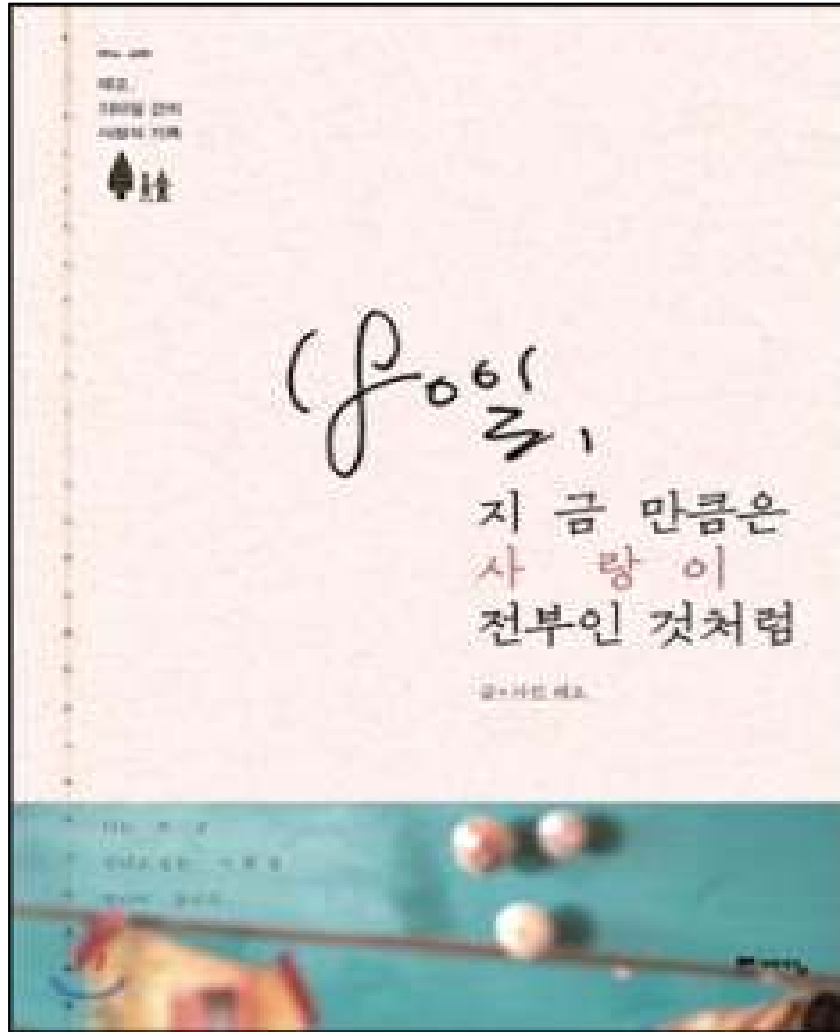
배우지 않았으나 사진을 찍어 판다.

처음 쓴 글로 작가가 됐고 여행이 일상이 되었다. 연애

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사랑 받는다.

2013.09.23 테오의 트위터 중

대표작 소개1



180일, 지금만큼은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글 테오 / 예담 / 2014년

글렌 골드의 한정판 앨범을 들으며 행복해하던 어느 저녁, 우연히 온라인에서 골드의 한정판 앨범을 갖고 싶어하는 그녀를 발견한다. 그녀는 온라인상으로 종종 인사를 나누거나 향 좋은 커피집을 알려 주던 사이, 딱 그 정도의 간격이었다.

그는 무엇에라도 이끌리듯 그녀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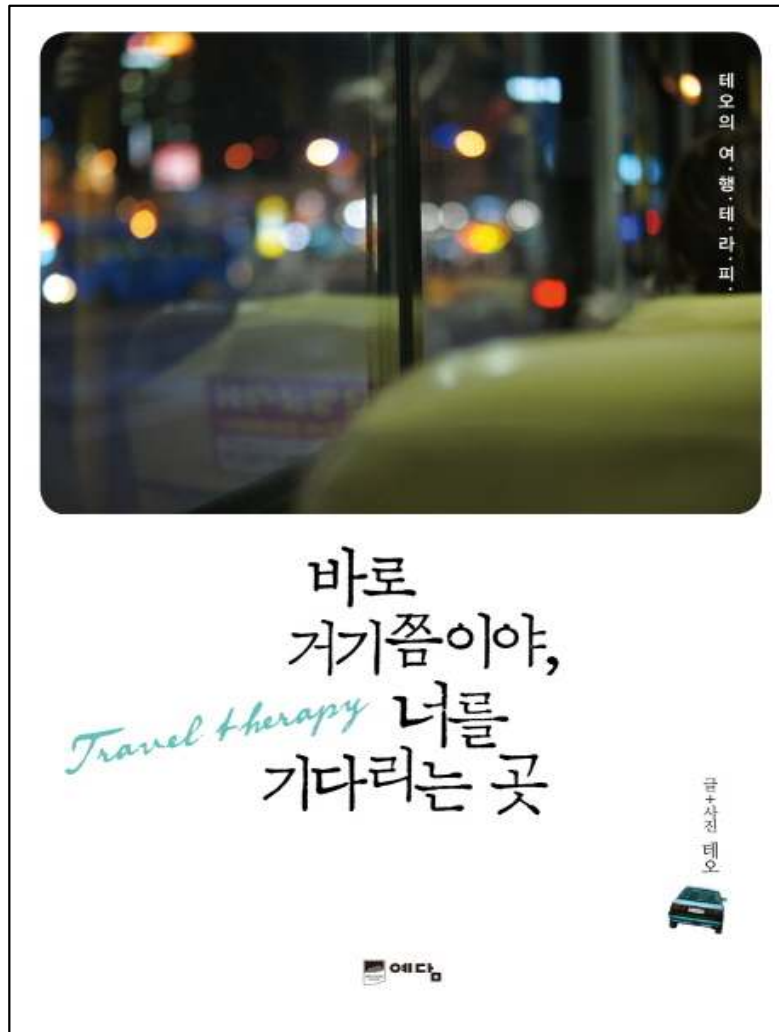
헤어지기 전, 자신의 앨범을 건네며 “이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 그녀는 그를 감싸 안았고 그때 두 사람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900일이 지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던 그에게 그녀는 ‘180일의 새로운 연애’를 선물한다.

“우리 다시 연애하자.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사랑하는 거야. 이별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더 많이 사랑할 거니까. 그동안 이별도 평온하게 일상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때요. 내 선물 마음에 들어요?”

<출판사 서평 중>

대표작 소개2



바로 거기잖아 너를 기다리는 곳
글 테오 / 예담 / 2012년

여행 테라피스트 테오의 특별한 처방전『바로 거기쯤
이야 너를 기다리는 곳』.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목표에 대한 부담, 중요한 선택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과의 소통 끝에 정리한 24가지의 여행 처방을 담고 있다.

과거를 지우고 싶을 때는 중국 통리를 찾아가 낯은 배에 오르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는 칼리처를 걸으며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듣고,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 느낄 때는 강촌을 걷다가 기차를 타고 돌아오고, 무작정 어디로든 떠나고 싶을 때는 인천공항 출국 라운지 카운터 D를 방문하고, 지난 시절의 내가 그리울 때는 좁은 골목길을 찾아 걷는 등 각각의 증상에 따른 여행 처방을 제시해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판사 서평 중>

당신을 여행 작가로 만들어 드리는

위로와 성찰의 여행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선택



이야기는 여행이 결정합니다.

좋은 여행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좋은 이야기가 글과 사진을 완성시켜 줍니다.



키 큰 그리스도상



시련의 비꾸냐



이르는 방법



비가 내리는 사막





미문의 법칙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 짧게 씁니다.

둘. 형용 대신 묘사를 합니다.

셋. 반복하지 않습니다.



단문의 구원



반부의 백신



묘사의 권능

글을 쓰다는 것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문장력은 몸에 익은 습관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씩 자주 글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는 세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 주인공을 배치합니다.

둘. 수평을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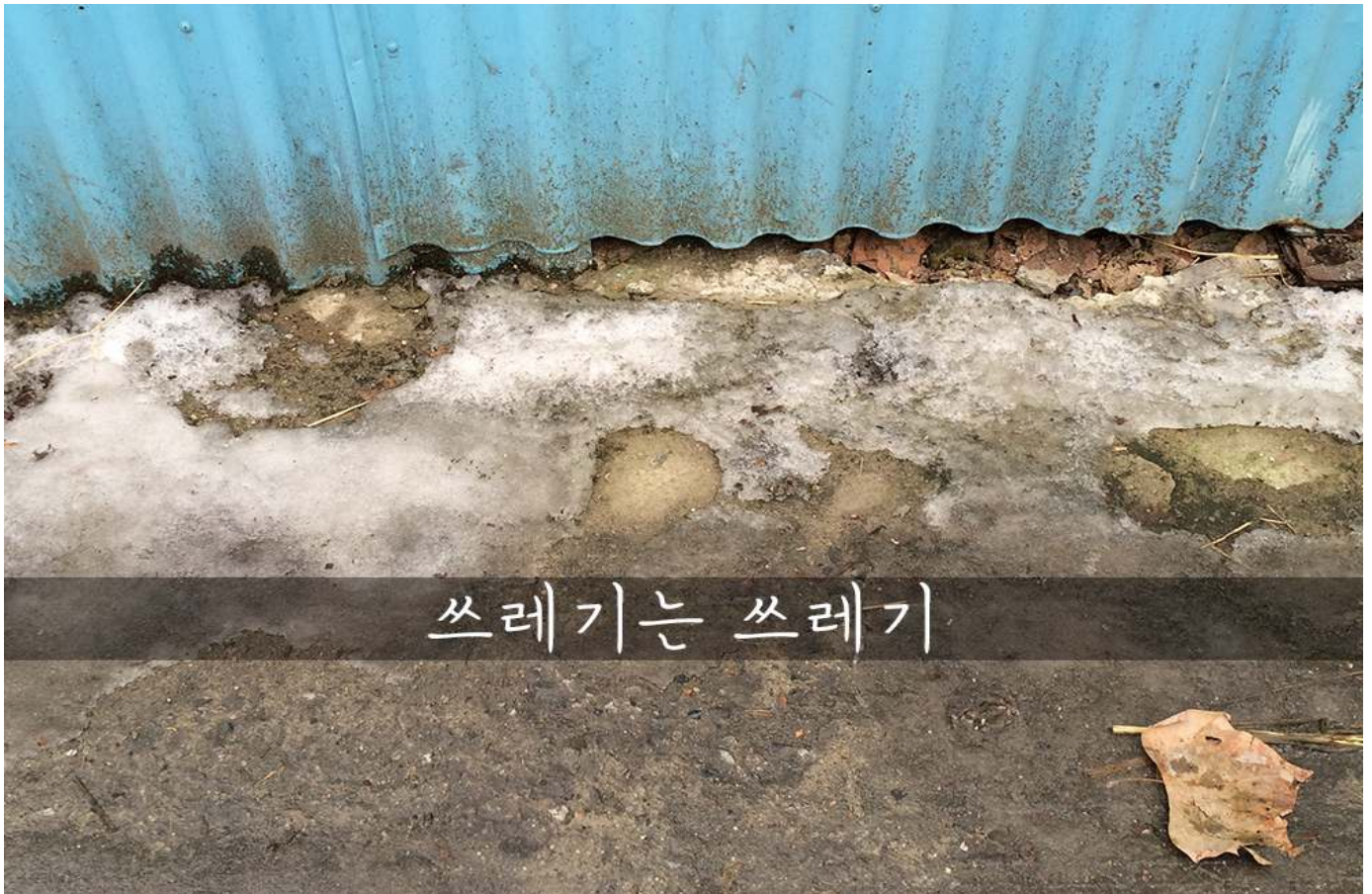
셋. 테두리의 쓰레기를 치웁니다.



배치가 절반



수평의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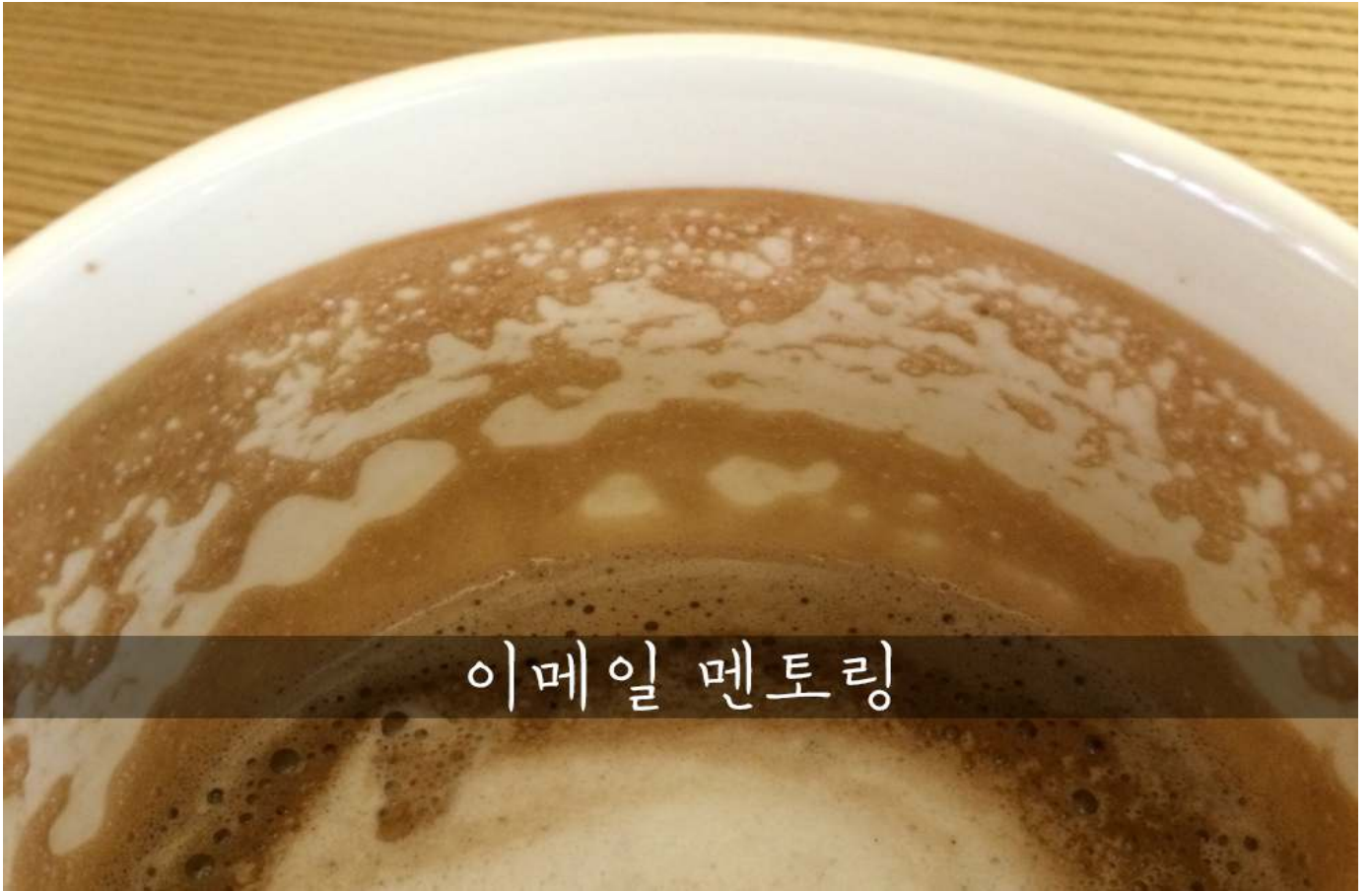


사진은 기술보다 느낌에 가깝습니다.

카메라의 성능이나 사진의 화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이 보여주는 감정입니다.



teowho@naver.com

오늘의 탐방



오늘의 탐방은 총 거리 3.7Km,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30분의 도보 여행입니다.

삼척천과 고목이 조화가 아름다운 삼척공원에서 시작하여, 말바위와 숙정문, 청운대를 거쳐 창의문까지 도달하는 동안

경복궁을 지키기 위해 축조한
곡성과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기억하고 있는
1.21 사태 소나무,

수려한 산세로 '반쯤 핀 모란꽃'에 비유되는
백악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소감문 1

유미영

요즘 인문학이 유행처럼 떠도는 시기이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소통, 리더십의 중요성이 커지고 내가 혼자 알고 있던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찰나였다. 우연히 동네 증산정보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만들고 간간히 책단비 서비스로 독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스마트폰 메일로 날아든 '길 위의 인문학'이란 도서관 프로그램의 이름은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였다.

큰 기대 없이 신청하고 막상 그날이 다가오자 사실 좀 귀찮고 피곤해서 갈까말까를 망설이다 좀 흥미로운 토요일 하루를 그리며 어렵게 도서관에 도착했다. 생각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흥미진진한 강의를 들으며 귀한 하루를 얻게 되었음에 기분이 좋아졌다. 미래시대는 전문가가 아닌 교양인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나를 조금 더 뿌듯하게 해주셨고, 영상에 비치는 그림이 작년 유럽 여행을 하면서 실제 관람했던 것이 많아 새로운 느낌을

갓게 해주었다.

친절한 도서관 선생님들도 마음에 들고 아주 과한 간식도 너무 감사했고,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초등학교 소풍 때 기분을 느끼며 행복했다.

그야말로 함께 숨 쉬는 인문학 여행이었다. 2차, 3차 프로그램도 기대가 된다. 미술관, 사진전, 그리고 유적지 돌아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자 소감문 2

이영주

요즘에 화두가 인문학을 강조하며 책이나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인문학 여행은 지루한 삶에 활력소를 주어 더욱 매료될 느꼈다.

책을 한번 읽고 와야 한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었지만, 도서대출 후 책에 내용은 술술 읽어나갔다. 현장에서 작가님의 설명도 다양한 계층의 연령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작품 하나씩 이해하게 편하도록 설해 주셨다. 도서관에서 선정한 환기미술관과 사진전도 좋았던 시간이었다. 작가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고 미술로 보기 어려운 스케치도 작품으로 여기는 부분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마지막 사진전에서 커피향이 나의 코를 자극하면서 멈추게 했지만 향에만 취해 다음에 기약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아쉬웠다. 함께 참석하신 분들과 우리로서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다음 일정은 공동으로 활동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듯 한 느낌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 주위에 지역과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던 시간이었다. 처음 메일을 클릭하여 나의 휴가를 뜻 깊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추후에 일정이 허락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다 보니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보니 참 많은 자원들이 동원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사했다.

2014 은평구립도서관이 걸었던

인문학의 길

편 집 : 은평구립도서관

발행일 : 2014년 10월 31일

발행처 : 은평구 통일로 78가길 13-84 은평구립도서관
02) 385-1671~4

비매품